

1. 밑줄 그은 '이 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반량전 등의 중국 화폐를 사용하였다.
- ② 대표적인 무덤으로 고인돌을 축조하였다.
- ③ 우경이 시작되어 깊이갈이가 가능해졌다.
- ④ 거푸집을 사용하여 세형 동검을 제작하였다.
- ⑤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하여 옷을 만들었다.

정답: ⑤

\* 신석기 시대의 사회 모습

기원전 8000년경부터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었다(가장 오래된 유적은 제주도 고산리). 신석기 시대 유적은 한반도 전 지역에 고루 퍼져 있으며, 주로 큰 강 유역이나 해안 지역에서 발견된다.

신석기 시대 유적(서울 암사동, 부산 동삼동 등)에서 발굴된 유물에는 간석기와 낚시, 바늘 등의 뼈 도구가 있다. 그리고 빗살무늬토기(아가리가 넓고 밑이 뾰족)가 널리 사용되어 식량을 저장하였다. 이보다 앞선 토기로 이른 민무늬 토기와 덧무늬 토기 등이 있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강가나 바닷가에 살면서 뼈낚시, 그물 등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거나 조개를 캐었고, 돌창, 돌화살 등으로 사냥을 하였다. 한편, 식물의 열매나 뿌리를 채취하여 먹는 생활을 하다가, 뒤에는 농사를 짓고 가축도 기르게 되었다.

황해도 봉산 지탑리와 평양 남경의 유적에서는 탄화된 좁쌀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신석기 시대에 잡곡류를 경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돌괭이로 땅을 일구고 조, 피 등을 재배하여 돌낫, 뼈낫 등으로 추수를 하였으며, 돌갈판에 갈돌로 곡식을 갈아서 음식을 만들어 먹었으며, 가락바퀴(방추차)로 실을 뽑고, 뼈바늘(골침)로 옷을 지어 입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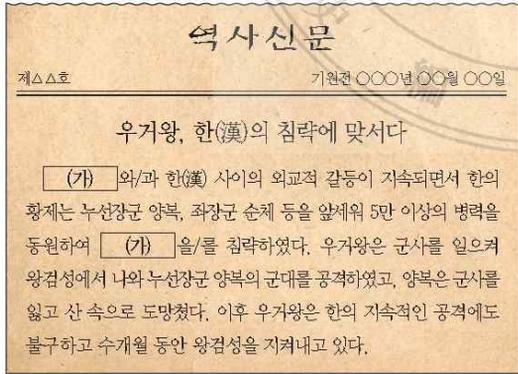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땅을 파고 그 위에 지붕을 씌운 원형의 움집에서 살았다(양양 오산리 유적이 유명). 그리고 같은 씨족의 씨족들이 모여 마을을 형성하고, 나아가 몇 개의 씨족이 모여 부족을 이루었다. 즉, 이들은 구석기 시대 사람들과 달리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사회에서는 경험이 많은 부족장이 농사, 사냥 등 생산 활동을 지휘하였다.

①, ④ 철기 시대에 들어서 거푸집을 사용하여 세형 동검을 제작하였고,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등의 중국 화폐를 사용하였다.

② 청동기 시대에는 거대한 고인돌이나 돌널 무덤을 축조하였다. 철기 시대에는 널무덤(토광묘)이나 독무덤(옹관묘)을 만들었다.

③ 우경은 신라 지증왕 3년(502)에 “처음으로 소를 밭가는 데 이용하였다”는 기록을 통해 적어도 6세기 이전에는 도입된 것으로 보이고 점차 확대되었다.

2. (가) 나라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임신서기석의 내용을 분석한다.
- ② 관산성 전투의 원인을 살펴본다.
- ③ 청해진이 설치된 배경을 알아본다.
- ④ 칠지도에 새겨진 명문의 내용을 찾아본다.
- ⑤ 위만 집권 이후 변화된 경제 상황을 조사한다.

정답: ⑤

\* 고조선에 대하여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에 기반을 두고 요령 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하여 점차 인접한 족장 사회를 통합하면서 한반도까지 발전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비파형 동검과 북방식(탁자식)고인돌의 출토 분포로써 알 수 있다.

고조선은 요녕과 대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문화를 이룩하면서 발전하여, BC 3C 경에는 부왕, 준왕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왕위를 세습하였으며, 그 밑에 상·대부·장군 등의 관직도 두었다. 또, 요서를 경계로 하여 연나라와 대립할 만큼 강성하였다.

중국 진·한 교체기에 예맥족 계열의 유이민 집단이 이주해 왔는데 위만은 1000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고조선으로 들어왔다.

위만은 준왕의 신임을 받아 서쪽 변경을 수비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는 그곳에 거주하는 이주민 세력을 통솔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점차 확대하여 나간 후, 위만은 수도인 왕검성에 쳐들어가 준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기원전 194).

위만 고조선은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였다. 철기의 사용은 농업과 무기 생산을 중심으로 한 수공업을 더욱 융성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상업과 무역도 발달하였다.

이 무렵, 고조선은 사회와 경제의 발전을 기반으로 중앙 정치 조직을 갖춘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우세한 무력을 바탕으로 활발한 임변, 진둔 등을 정복하며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였다. 또,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하여 동방의 예나 남방의 진이 직접 중국의 한과 교역하는 것을 막고, 중계 무역의 이득을 독점하려 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군사적 발전을 기반으로 고조선은 중국의 한과 대립하였다.

이에 불안을 느낀 한의 무제는 수륙 양면으로 대규모 침략을 감행하였다. 고조선(우거왕)은 1차전(패수)에서 대승을 거두었고, 이후 약 1년에 걸쳐 한의 군대에 맞서 완강하게 대항하였다. 그러나 장기간의 전쟁으로 지배층의 내분이 일어나 왕검성이 함락되어 멸망하였다(기원전 108).

- ① 임신서기석을 보면 신라에서도 청소년이 유교 경전을 공부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 ② 백제 성왕은 고구려의 내정이 불안한 틈을 타서 신라 진흥왕과 연합하여 일시적으로 한강 유역을 부분적으로 수복하였지만(551) 곧 신라에게 빼앗기자(553), 신라를 공격하다가 관산성에서 전사하였다(554).
- ③ 8세기 이후 동아시아의 무역 활동이 활발해지자, 장보고(?~846)는 신라 하대의 중앙의 지방 통제력 상실을 이용하여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828) 해적을 소탕하여 남해와 황해의 해상 무역권을 장악하였다.
- ④ 일본 이소노카미 신궁에 보관되어 있는 칠지도(369)는 백제(근초고)왕이 왜왕에게 보낸 칼임을 알려주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

3. (가), (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가) 은력(殷曆) 정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며 국중대회(國中大會)에서 연일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니, 이를 영고(迎歌)라고 한다. 이때 형옥(刑獄)을 판단하여 죄수를 풀어주었다.  
 (나) 그 나라의 풍속은 산천을 중시하였으며, 산천마다 각각의 구분이 있어 함부로 서로 건너거나 들어갈 수 없었다. …… 음락이 서로 침범하면 항상 생구(生口)·우마(牛馬)로 죄를 처벌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이름하여 책화(責禍)라고 한다.

- ① (가) - 여러 가(加)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렸다.
- ② (가) - 특산물로 단궁, 과하마, 반어피 등이 있었다.
- ③ (나) - 제가 회의에서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 ④ (나) - 사회 질서의 유지를 위해 법규 8조를 만들었다.
- ⑤ (가), (나) -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 지역인 소도가 있었다.

정답: ①

\* 초기국가 부여와 동예

(가) 부여: 풍속으로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이것은 수렵 사회의 전통을 보여주는 것으로 12월에 열렸다. 이 때에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노래와 춤을 즐겼으며, 죄수를 풀어 주기도 하였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제천 의식을 행하고, 소를 죽여 그 굽으로 길흉을 점치기도 하였다.

부여에는 왕 아래에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저가, 구가와 대사자, 사자 등의 관리가 있었다. 이들 가(加)는 저마다 따로 행정구획인 사출도를 다스리고 있어서, 왕이 직접 통치하는 중앙과 합쳐 5부를 이루었다. 가들은 왕을 추대하기도 하였고, 수해나 한해를 입어 오곡이 잘 익지 않으면 그 책임을 왕에게 묻기도 하였다. 그러나 왕이 나온 대표 부족의 세력은 매우 강해서 궁궐, 성채, 감옥, 창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왕이 죽으면 많은 사람을 껴묻거리와 함께 묻는 순장의 풍습이 있었다.

부여의 법으로는,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으며,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에는 물건값의 12배를 배상하게 하고, 간음한 자와 투기가 심한 부인은 사형에 처한다는 것 등이 전해지고 있다. 이는 고조선의 8조의 법과 비슷한 종류임을 알 수 있다.

(나) 동예: 토지가 비옥하고 해산물이 풍부하여 농경, 어로 등 경제 생활이 윤택하였다. 특히, 명주와 삼베를 짜는 등 방직 기술이 발달하였다. 특산물로는 단궁이라는 활과 과하마, 반어피 등이 유명하였다. 동예에서는 매년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그리고 족외혼(族外婚)을 엄격하게 지켰으며, 각 부족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였다.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책화라 하여 노비와 소, 말로 변상하게 하였다.

③ 고구려는 왕 아래에 상가, 고추가 등의 대가들이 있었으며, 각기 사자, 조의, 선인 등 관리를 거느렸다. 그리고 중대한 범죄자가 있으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제가 회의를 통하여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을 노비로 삼았다.

④ 고조선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률로 8개 조항(8조법)이 있었는데, 3개 조항(살인·상해·절도)만 오늘날까지 전해진다.

⑤ 삼한에서 천군이 주관하는 소도는 군장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죄인이라도 도망을 하여 이 곳에 숨으면 잡아가지 못하였다(제정분리).

4. 밑줄 그은 '이 나라'의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2점]



이 그림은 이 나라의 시조인 이진야사왕을 그린 것으로, 2016년 12월에 표준 영정으로 공식 지정되었다. 여러 사서에 기록된 건국 이야기에 따르면 김수로왕과 형제이기도 한 그는 현재의 고령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나라를 세웠다고 한다. 표준 영정의 판(版)과 장신구 등은 고령에서 출토된 유물을 바탕으로 하였다.



정답: ②

\* 대가야의 문화유산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대가야는 시조 이진야사왕으로부터 도설지왕까지 16대 520년간 존속했다고 하나 확실하지 않다.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하는 초기 가야연맹은 4세기 후반 이후 고구려의 침입으로 큰 타격을 입고 세력이 약화되면서(백제도 위축됨) 신라의 세력권으로 들어갔다.

반면 5세기 이후에는 고령·합천 등 경상도 내륙 산간지방의 농업에 유리한 입지조건과 제철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하던 소국 반파국은 5세기 후반에 새로이 시조설화를 만들며 대가야를 표방하며 합천·거창·함양·산청·아영·하동·사천 등지를 포괄하는 후기 가야연맹의 맹주로서 국제사회에도 등장하였다.

479년에 가야왕 하지(荷知)의 이름으로 남제(南齊)에 사신을 보내 작호를 받았고, 481년에는 백제·신라와 동맹하여 고구려를 침입하였다. 5세기 후반부터 6세기 전반까지 진행된 급속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대가야는 백제와 신라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활동의 폭이 매우 제한되었다. 554년 백제와 연합하여 신라를 공격하였으나 크게 패하고, 오히려 562년 신라의 침입으로 멸망하였다.

대가야는 정치적으로 삼국보다 발전하지 못했지만, 문화적으로는 가야금을 제작하고 음악을 정리하는 등 높은 문화수준을 보유했다. 또한 지산동 고분을 비롯하여 본관동·중화동·양전동·종암동·쾌빈동 등 고령지역에 분포한 유적지에서 출토되는 금동관, 판갑옷과 투구 등 많은 유물들은 가야연맹의 맹주인 대가야의 발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 ① 연가7년명 금동여래 입상(국보 119호): 경남 의령에서 발견된 고구려의 불상.
- ② 고령 지산동 32호분 출토 판갑옷과 투구
- ③ 경주 호우총 출토 호우명 그릇(보물 1878호): 고구려 광개토대왕과 관계있는 유물
- ④ 공주 무령왕릉 출토 진묘수(국보 162호): 묘를 지켜주는 수호신적인 영물
- ⑤ 천마총 천마도(국보 207호): 경주 황남동 천마총에서 나온 천마도(벽화가 아닌 말의 배가리개에 그림)는 신라의 힘찬 화풍을 잘 보여 주고 있다.

5. 밑줄 그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 ② 낙랑군을 축출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 ③ 전진의 순도를 통해 불교를 수용하였다.
- ④ 당의 침입에 대비하여 천리장성을 쌓았다.
- ⑤ 신라에 군대를 파견하여 왜를 격퇴하였다.

우리나라의 왕 중 최초로 연호를 사용(영락)하여 살아생전에는 '영락'대왕, 시호는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으로 후대에 광개토대왕, 호태왕으로 널리 알려졌다.

그는 소수림왕 때의 내정 개혁을 바탕으로 백제를 굴복시켜 한강 이북의 지역을 점령하였으며, 이어 만주 지방에 대한 대규모의 정복 사업(후연, 거란, 숙신, 동부여 등)을 단행하였다. 한편 노복이 되겠다고 맹세한 백제가 왜를 끌어들여 신라에 침입해오자, 신라 내물왕의 군사원조 요청을 받아들여 군사 5만을 보내어 왜를 격퇴하였다(400). 이로써 신라와 왜·가야 사이의 세력 경쟁에 개입하여 신라의 발전을 도모케 하였고, 금관가야 중심의 전기 가야연맹을 붕괴시키는 등 한반도 남부에까지 영향력을 끼쳤다.

그의 군사적 업적은 만주 집안에 있는 광개토 대왕릉비(414)에 잘 나타나 있다.

① 장수왕(413~491)은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고(427), 남진정책을 추진하며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하고(475) 한강 전 지역을 포함하여 죽령에서 남양만을 연결하는 선까지 그 판도를 넓혔다.

② 미천왕(300~331)은 중국의 5호16국 혼란기를 틈타 낙랑군(313), 대방군(314)을 축출하며 이 땅에 한의 군현을 모두 몰아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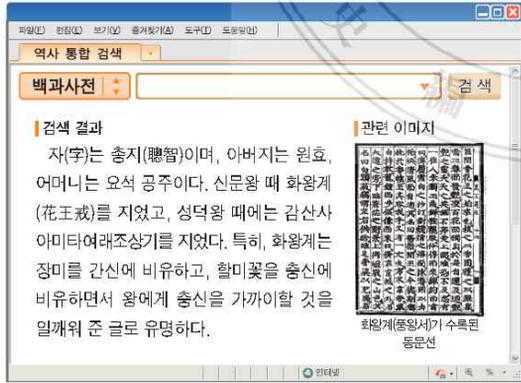
③ 소수림왕(371~384)은 중국 전진의 승려 순도를 통하여 불교를 수용하였다(372).

④ 고구려는 야심많은 당태종이 집권하자 영류왕 대(618~642)에 요하 국경선에 천리장성을 쌓고 당의 공격에 대비하였다(631~647).

정답: ⑤

\* 광개토 대왕(재위:391~412)

6.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진골 귀족 출신으로 화랑세기 등을 저술하였다.
- ② 외교 문서 작성에 능하여 청방인문표를 집필하였다.
- ③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순례하고 왕오천축국전을 지었다.
- ④ 명망 높은 승려들의 전기를 정리한 해동고승전을 남겼다.
- ⑤ 한자의 음과 훈을 차용한 이두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정답: ⑤

\* 이두를 정리한 설총에 대하여

원효(617~686)와 요석 공주 사이에서 태어난 6두품 출신의 설총(655~?)은 유교 경전에 조예가 깊었고, 한자의 음과 훈을 차용한 이두를 정리하여 한문 교육의 보급에 공헌하였고, 신문왕에게 풍간(諷諫)의 뜻을 담은 화왕계(花王戒)를 지어 바쳤다.

① 통일신라기 성덕왕(702~737)때의 대표적 문장가인 진골 출신 한산주 총독(704) 김대문은 신라의 역사를 기록한 계림잡전, 화랑의 전기를 모은 화랑세기, 유명한 승려의 전기를 모은 고승전, 한산주 지방의 지리지인 한산기, 음악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악본 등을 지었다.

② 통일 신라 초에 활약한 6두품 출신의 강수(?~692)는 외교 문서를 잘 지은 문장가로 유명하였다. 특히 당시 당나라에 갇혀있는 김인문을 석방해 줄 것을 청한 <청방인문표(請放仁問表)>는 당 고종을 감동시켜 김인문을 돌려보내게 하였다. 그는 불교를 세외교(世外教, 세상 밖의 형이상학적 종교)라고 비판하였다.

③ 통일신라기에 혜초(704~787)는 자신이 돌아본 인도와 중앙 아시아 여러 나라의 풍물을 생생하게 기록한 왕오천축국전을 남겼다.

④ 고려 후기 각훈이 쓴 해동고승전(1215)은 삼국 시대 이래의 승려 30여 명의 전기가 수록되어 있는데, 현재 일부만 남아 있다.

7. (가), (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답사 계획서**

- ◆ 주제: ○○의 도읍지를 찾아서
- ◆ 기간: 2017년 △△월 △△일 ~ △△일
- ◆ 일정 및 지역
  - 1일차: (가)



- 2일차: (나)



<보 기>

ㄱ. (가) -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무령왕릉이 있다.  
 ㄴ. (가) - 목탑 양식을 계승한 미륵사지 석탑이 있다.  
 ㄷ. (나) - 국보로 지정된 금동 대향로가 출토된 곳이다.  
 ㄹ. (나) - 고구려에서 남하한 온조가 도읍으로 삼은 곳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 공주와 부여의 문화유산

2015년 7월 백제 역사유적 지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익산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 2곳, 공주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 2곳, 부여 관북리 유적 부소산성과 능산리 고분군, 정림사지와 부여 나성의 4곳 합친 총 8곳이다.

㉠ 백제 웅진(공주) 시기(475~538)의 고분인 무령왕릉(송산리 고분군 7호분)은 널방을 벽돌로 쌓은 벽돌무덤으로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다.

㉡ 익산 미륵사지 석탑(국보 11호)은 한국에 남아있는 석탑 중 백제 무왕 때(639년)에 만들어진 가장 오래된 석탑으로 백제 석탑의 시원 형식이라고 불리며, 여러 면에서 한국 석탑 전체의 출발점으로 여겨지고 있다. 서탑만 일부가 남아 있는데 목탑의 모습을 많이 지니고 있다.

㉢ 백제 금동 대향로(국보 227호)는 부여 능산리 고분군 사이 절터의 한 구덩이에서 450여 점의 유물과 함께 발견되었다.

㉣ 백제는 북쪽(부여, 고구려)에서 내려온 유이민(온조, 비류 집단)들이 한강 유역의 위례성에 자리 잡으면서 마한의 한 나라인 백제 국으로부터 시작되었다(기원전 18).

8. 다음 문서를 제작한 국가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이 문서는 1883년 일본 도다이사(東大寺) 쇼소인(正倉院)에서 발견되었다. 이 문서에는 촌락마다 호(戶)의 등급과 변동 상황, 성별·연령별 인구의 규모가 파악되어 있으며, 논·밭의 면적 등이 기록되어 있다.

- ①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 ② 빈민 구제를 위한 진대법이 실시되었다.
- ③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이 있었다.
- ④ 감자, 고구마 등의 구황 작물이 재배되었다.
- ⑤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기록한 농사직설이 편찬되었다.

정답: ③

\* 민정문서를 작성한 신라의 경제

통일신라기에 촌주는 촌락마다 그 지역의 토지 크기·인구 수·소와 말의 수·특산물 등을 파악하는 문서(민정문서)를 3년마다 만들고, 조세·공물 부역 등을 거두어 국가에 바쳤다. 이 문서는 일본 도다이사 쇼소인에서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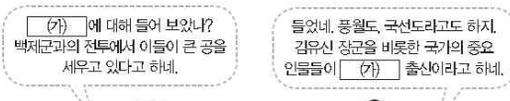
① ④, 조선 후기에는 노동력을 절감하여 단위 면적당 생산력을 늘릴 수 있는 모내기법(이앙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감자·고구마 등의 구황작물이 전래되어 재배되었다.

② 고구려는 고국천왕 때에 빈민구제를 위해 먹을거리가 모자란 봄에 곡식을 빌려 주었다가 가을에 추수한 것으로 갚게 하는 진대법을 실시하였다(194).

③ 신라는 지증왕 때부터 시장 감독 기구로 동시전(509)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⑤ 조선 초 세종 때에 정초, 변호문 등을 시키어 편찬한 농사직설(1429)은 우리 풍토에 맞는 씨앗의 저장법, 토질의 개량법, 모내기법 등 농민의 실제 경험을 종합한 농서이다.

9.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국학 내에 설치되었다.
- ② 경당에서 책을 읽고 활쓰기를 배웠다.
- ③ 진흥왕 때 국가적인 조직으로 정비되었다.
- ④ 귀족들로 구성되어 만장일치체로 운영되었다.
- ⑤ 유교 경전을 가르치기 위해 박사와 조교를 두었다.

정답: ③

\* 화랑도

신라 청소년은 화랑도 활동을 통하여 전통적 사회 규범을 배웠다. 화랑도는 국선도, 풍류도, 풍월도, 원화도라 불리었는데 이는 화랑도가 유.불.선(도교)이 결합된 정신에서 유래 되었고다.

이들은 명산대천을 찾아다니며 제천 의식을 행하고, 사냥과 전쟁에 관하여 교육을 받음으로써 협동과 단결 정신을 기르고 심신을 연마하였다. 수에 걸사표를 지어 올린 원광은 화랑들에게 세속 5계를 가르쳐 마음가짐과 행동의 규범을 제시하였다.

화랑도는 씨족공동체 사회의 청소년 집회소의 전통을 이은 청소년 수련단체로 삼국항쟁이 치열해지기 시작한 진흥왕 때 국가조직으로 정비되어(576) 삼국통일을 이룩할 때까지 한 세기 동안에 활기를 띠며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많이 배출하였는데, 사다함, 김유신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러나 통일 후 나라에 태평시대가 계속되면서 쇠퇴하여 신라가 멸망할 때까지 존속하였다.

또한 화랑도는 한 시대에 하나의 집단만이 아닌 여러 집단이 존재하였으며, 각 화랑도는 각기 화랑 한 명과 승려 약간 명, 그리고 화랑을 따르는 다수의 낭도로 구성되었다. 이렇듯 여러 계층이 같은 조직 속에서 일체감을 가지고 활동함으로써 계층 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절, 완화하는 구실도 하였다.

①, ④ 통일 신라에서는 신문왕(681~692) 때 국학(682)이라는 유학 교육 기관을 설립하였다. 그 후, 경덕왕(742~765) 때에는 국학을 태학으로 고치고 박사와 조교를 두어 논어와 효경 등의 유교 경전을 가르쳤다

② 고구려는 소수림왕 때에 수도에 태학(372)을 세워 고관 귀족 자제들에게 유교 경전과 역사서를 가르치고, 지방에는 경당을 세워(장수왕대) 청소년에게 한학과 무술을 가르쳤다.

⑤ 신라의 초기 연맹체의 전통을 유지한 대표적인 제도는 화백회의였다. 화백회의는 진골 귀족으로 구성되어 만장일치체로 운영되었으며, 귀족은 이를 통하여 국왕을 폐위시킨 적도 있었고, 새 국왕을 추대하는 데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왕권을 견제하기도 하였다.

10.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1점]

살수(薩水)에 이르러 (적의) 군사가 강을 반쯤 건넜을 때 아군은 뒤에서 적군을 공격하여 우둔위장군(右屯衛將軍) 신세용을 죽였다. …… 처음 적의 군대가 요하에 이르렀을 때에는 30만 5천여 명이었는데, 요동성으로 돌아갔을 때에는 겨우 2천 7백 명뿐이었다. - 『삼국사기』 -

589	618	645	660	668	676
(가)	(나)	(다)	(라)	(마)	
수의 중국 통일	당의 건국	안시성 전투	사비성 함락	평양성 함락	기벌포 전투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①

\* 살수 대첩 (612)

오랜 분열과 혼란을 거듭해 온 중국이 수에 의해 통일되었다(589). 수의 등장에 위협을 느낀 고구려는 같은 처지에 놓인 유목 민족인 돌궐과 연합하여 수에 대항하였고, 수의 침입을 미리 막고 전략상 유리한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먼저 랴오허 강을 건너 전략적 요충지인 요서 지방을 공격하였다. 이에 수 문제가 침공해 왔으나, 고구려는 이를 물리쳤다.

612년에 수 양제는 직접 113만 대군을 동원하여 고구려를 침공하였다. 요동성을 포위, 공격하는 데 실패하고 바다를 건너 평양성 부근까지 침략한 수군 또한 참패하자, 초조해진 수 양제는 30만 명의 별동대를 투입하여 평양성을 치게 하였다.

우중문 등이 거느린 별동대는 고구려 장군 을지문덕의 유도 작전에 말려들어 평양성 부근까지 진군하였다가 크게 지치고 굶주려 결국 후퇴하게 되었다. 고구려는 이 틈을 타서, 적군이 살수를 건널 때 그 주력 부대를 공격하여 전멸시켰다. 그리하여 별동대 30만 명 중에서 살아서 돌아간 사람은 겨우 2700 명 정도였다고 한다. 이 싸움이 유명한 살수 대첩이다(612).

그 뒤에도 고구려는 수의 공격을 몇 차례 더 물리쳐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였다. 수는 무리한 전쟁으로 인한 국력 소모와 내란으로 결국 망하고 말았다(618).

11. (가) 인물이 활동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이 책은 대학자이자 문장가인 (가)의 문집이다. 저자가 일찍이 당(唐)에 있을 때 저술한 작품을 선별하여 모은 것으로, 총 2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권 11에 수록된 '격황소서(檄黃巢書)'는 '토황소격문'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난을 일으킨 황소가 이것을 읽다가 놀라서 자신도 모르게 평상에서 떨어졌다는 일화로 유명하다.

- ① 국가 주도로 건원중보가 발행되었다.
- ② 관료전이 지급되고 녹음이 폐지되었다.
- ③ 원종과 애노의 난 등 농민 봉기가 일어났다.
- ④ 묘청 등이 중심이 되어 서경 천도를 주장하였다.
- ⑤ 의상이 화엄 사상을 바탕으로 교단을 형성하였다.

정답: ③

\* 최치원이 활동한 신라 하대의 모습

통일 후 번영을 계속하던 신라는 7세기 후반부터 귀족들의 권력다툼에 휘말리게 되었다. 소수의 진골 귀족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왕과 귀족 사이에, 그리고 귀족들 서로 간에 싸움이 자주 일어났다. 귀족들이 농장을 늘리고 자신의 군대를 키워 서로 다투었지만, 국가는 이를 통제 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권력다툼은 혜공왕 때 시작되었다. 혜공왕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면서 귀족들의 다툼이 시작되어 결국 혜공왕은 살해를 당하였다(대공의 난, 96각간의 난, 김지정의 난). 이로써 통일 직후 지속되던 무열왕계의 왕위 세습(654~780)이 끊어졌다(780년 선덕왕 즉위: 내물왕계). 이후 신라에서는 왕위다툼이 심해져서 150여 년 동안에 20명의 왕이 바뀌는 큰 혼란이 일어나 왕권이 크게 약화되었다.

중앙 귀족들 사이에 왕위 쟁탈전이 치열해지면서 왕권이 약화되고 귀족 연합적인 정치가 운영되었다.

왕위 쟁탈전에서 탈락한 낙향 진골 귀족의 반란(예: 822년 웅주 도독 김헌창의 난)은 지방 세력(호족)들도 왕위 쟁탈전에 가담케 하여(예: 846년 청해진을 설치한 장보고의 난), 중앙 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고 반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이들은 선종 승려나 6두품의 지식인을 맞아들이면서 통치력을 길렀다. 그리하여 호족들은 신라 정부에 도전하면서 점차 새로운 사회를 준비해 나갔다. 그러나 6두품 출신 유학자로 당의 빈공과에 급제하고 <토황소격문>으로 문명을 떨쳤던 최치원(857~?)은 귀국하여 진성여왕 때에 개혁안(시무책) 10여조를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자연 재해가 잇따르고, 왕실과 귀족들의 사치와 향락으로 국가 재정이 바닥나면서 농민에 대한 강압적인 수취가 뒤따랐다. 살기가 어려워진 농민은 토지를 잃고 노비가 되거나 초적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중앙 정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높아지고 사벌주에서의 원종과 애노의 난(889)을 시작으로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10세기로 들어오면서 지방에서 성장하던 견훤과 궁예는 신라 말의 혼란을 틈타 독자적인 정권을 수립함으로써 후삼국 시대가 전개되었다.

①, ④ 고려 시대에는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화폐가 발행되었다. 성종 때에는 철전인 건원중보(996)가 발행되었으며, 인종 때에 묘청 등이 서경 천도를 주장하다 실패하자 난을 일으켰으나 실패하였다(1135)

②, ⑤ 통일 직후 신라 중대인 신문왕 때에 왕권이 전제화 되어 문무 관리에게 관료전을 지급(687)하고, 귀족의 경제 기반이었던 녹음을 폐지(689)하기도 하였으며, 의상(625~702)의 화엄종은 사상적으로 전제왕권을 뒷받침하였다.

12.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점]

**특별전**

**문화유산을 통해 본 (가)**

우리 학교 역사 동아리에서 (가)의 문화유산 사진들을 모아 특별전을 마련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 기간: 2017년 00월 00일 ~ 00월 00일  
• 장소: 본관 2층 역사 탐구실

- ① 전성기에 해동성국이라고도 불렸다.
- ② 중앙 6부의 명칭을 유교식으로 정하였다.
- ③ 인안, 대흥 등의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다.
- ④ 5경 15부 62주의 지방 행정 제도를 갖추었다.
- ⑤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하여 외사정을 두었다.

정답: ⑤

\* 발해에 대하여

- 제시된 영광탑, 정혜공주묘 앞 돌사자상, 지미(장식기와)는 모두 발해 문화유산이다.

발해는 문왕(719~737), 무왕(737년~793년)대에 눈부신 발전을 하여 중국과 대등한 지위에 있음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하여 인안(무왕), 대흥·보력(문왕)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특히 전성기인 선왕(818~830) 때에는 해동성국이라 불리우었다.

발해의 중앙의 정치 조직은 3성(정당·중대·선조)과 6부(충·인·의·지·예·신)를 근간으로 편성하였다. 정당성의 장관인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하였고, 그 아래에 있는 좌사정이 충·인·의 3부를, 우사정이 지·예·신 3부를 각각 나누어 관할하는 이원적인 통치체제를 구성하였다. 당의 제도를 수용하였지만, 그 명칭(유교식)과 운영은 발해의 독자성을 유지하였다. 이 외에도 관리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중정대, 서적 관리를 맡은 문적원, 중앙의 최고 유교 교육기관인 주자감 등이 있었다.

발해의 지방 행정 조직은 5경 15부 62주로 조직되었다. 전략적 요충지에는 5경을 두었고, 지방 행정의 중심에는 15부(도독)를 두었으며, 그 아래에 주(자사)와 현(현승)을 두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발해의 군사 조직은 중앙군으로 10위를 두어 왕궁과 수도의 경비를 맡겼고, 지방행정 조직에 따라 지방군을 편성하여 지방관이 지휘하게 하였다. 국경의 요충지에는 따로 독립된 부대를 두어 방어하기도 하였다.

⑤ 신라는 삼국 통일 후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하여 외사정을 파견하였다.

13.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문화유산 정보 ◆

(가) 산성



경상북도 기념물 제53호로 상주시 화북면 장암리에 위치한 석성(石城)이다. 완산주(지금의 전주)를 도읍으로 삼아 후삼국 중 한 나라를 세웠던 (가) 이가 쌓았다고 전해지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였다. 이 산성 뿐만 아니라 상주 지역의 옛 성에는 그와 관계된 이야기가 많은데, 이는 사서에 그가 이자개의 아들로 상주 가은현 출신 이라고 기록된 데에서 연유한다.

- ① 북한산에 순수비를 세웠다.
- ② 양길의 휘하에서 세력을 키웠다.
- ③ 중앙군으로 9서당을 설치하였다.
- ④ 후당, 오월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 ⑤ 송악에서 철원으로 도읍을 옮겼다.

정답: ④

\* 견훤에 대하여

상주의 군인 출신 견훤은 황해안의 해상 세력과 도적 떼 등을 자신의 군사 기반으로 흡수하여 자립하였다. 견훤은 나주를 거쳐 무진주(광주)를 점령한 후 북상하여 완산주에 도읍을 정하고 후백제를 세웠다(900). 그는 중국(후당, 오월)과 외교관계를 맺는 등 국제적 감각도 갖추었다.

그는 927년 대야성을 점령하고 이어 신라 수도 금성을 급습하여 포석정에서 경애왕을 자결케 하였고, 신라를 도우러 온 왕건의 고려군을 공산(대구) 전투에서 대패시켰다. 그러나 왕건의 고려는 신라인의 신망을 얻었고, 그 결과 신라 경순왕의 항복을 받아 전쟁 없이 신라를 통합할 수 있었다(935).

한편 후계 문제를 놓고 그와 갈등하던 맏아들 신검이 배다른 형제 금강을 죽이고 견훤을 금산사에 감금하자 견훤은 탈출하여 고려로 귀순하였고, 후백제 정벌에 앞장섰다. 결국 일리천 전투에서 왕건의 고려군은 신검의 후백제군을 크게 파하고 후삼국을 통일하였고, 견훤도 곧 사망하였다(936).

① 신라 진흥왕(540~576)의 폭넓은 정복 활동은 북한산 순수비 등의 4개의 척경.순수비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⑤ 양길의 부하 출신으로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는 영토를 확장하고 국가 기반을 다져, 도읍을 철원으로 옮기면서 국호를 마진(연호: 무태)로 바꾸었다가(904), 다시 태봉(연호: 수덕만세->정개)으로 바꾸며(911) 황제국의 면모와 새로운 정치를 추구하였다.

③ 통일신라기의 중앙과 지방군인 9서당 10정은 신문왕(681~687) 때에 완비되었다

14.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가) 혜종이 병으로 자리에 눕자 왕규는 다른 뜻을 품었다. 이에 정종이 은밀하게 왕식렴과 함께 변란에 대응할 계획을 세웠다. 왕규가 난을 일으키자, 왕식렴은 평양에서 군대를 거느리고 (개경으로) 들어와 지켰다.

(나) 경종 원년 11월에 처음으로 직관(職官)·산관(散官)의 각 품의 전시과를 제정하였다. …… 자삼(紫衫) 이상은 18품으로 나누었다.

- ① 5도 양계의 지방 제도가 확립되었다.
- ② 민생 안정을 위해 흑창이 처음 설치되었다.
- ③ 노비안검법의 실시로 국가 재정이 확충되었다.
- ④ 전국에 12목이 설치되고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 ⑤ 관학 진흥을 위해 전문 강좌인 7재가 개설되었다.

정답: ③

\* 고려 정종~광종 대의 역사적 사실

고려 태조 왕건의 뒤를 이은 혜종(943~945)과 정종(945~949) 때에는 왕권이 불안정하여 왕자들과 외척들 사이에 왕위 계승 다툼이 일어났다(예: 왕규의 난).

혜종이 왕규의 위협 속에 단명하자, 정종은 서경의 왕식렴과 결탁하여 이를 처단하였다. 그러나 도참설을 흑신하여 서경천도를 도모하자 많은 사람들이 부역에 동원되어 민심이 떠나고, 개경 세력이 반대하여 실패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즉위한 광종(949~975)은 노비안검법(956)을 실시하여 호족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수입 기반을 확대하였다. 이어 후주 출신 귀화인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 제도를 시행하여(958), 유학을 익힌 신진 인사를 등용하고 신구 세력의 교체를 도모하였으며, 지배층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였다(960).

이어서 경종(975~981)은 관리들의 직역에 대한 대가로 인품과 관품에 따라 수조권 토지를 분급하는 전시과 제도를 처음 마련하였다(시정 전시과, 976).

① 고려의 지방의 행정 조직 5도 양계는 현종(1009~1031) 때에 정비되었다(1018).

② 태조(918~943)는 애민정책의 일환으로 호족이 지나치게 세금을 거두지 못하도록 하고, 조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세율을 10분의 1로 낮추어 농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취민유도), 흑창(춘대추납)을 설치하여 빈민을 구제하였다.

④ 고려 성종(981~997)은 최승로의 건의(시무 28조)를 받아들여 12목에 지방관을 파견하였다(983).

⑤ 예종(1105~1122) 때에는 국자감을 재정비하여 전문 강좌(7재)를 설치하고, 장학재단(양현고)을 두어 관학의 경제 기반을 강화하였고 궁중 안에 청연각, 보문각, 천장각, 임천각 등의 도서관 겸 학문 연구소를 설치하였다.

15. 밑줄 그은 '경제 정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왜관을 설치하여 일본과 교역하였다.
- ② 과전법을 공포하여 전제를 개혁하였다.
- ③ 신돈을 등용하여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
- ④ 연분 9등법을 시행하여 수취 체제를 정비하였다.
- ⑤ 해동통보를 발행하여 화폐의 통용을 추진하였다.

정답: ⑤

\* 고려 숙종 대의 경제 정책

고려 시대에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화폐가 발행되었다. 성종(981~997) 때에는 철전인 건원중보(996)를 만들었으며, 숙종(1095~1105) 때에는 의천의 적극적인 화폐 사용 건의가 있어 주전도감이 설치되고(1097), 삼한통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등 동전(1102)과 우리나라의 지형을 본떠서 만든 고가의 화폐인 활구(은병)라는 은전을 만들었으나(1101), 널리 유통되지 못하였다. 일반적인 거래는 여전히 곡식이나 삼베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적극적인 화폐 유통정책은 윤관의 건의를 받아들여 별무반이(1104)라는 특수 부대를 편성하는 등 재정확보를 위한 측면이 강하였다.

① 1609년(광해군 원년)에는 대마도주와 기유약조(세건선 20척, 세사미 100석 이내)를 체결하여 국교가 재개되며 부산에 왜관이 설치되었다(1609년 두모포->1678년 초량진)

② 위화도 회군(1388) 이후 이성계를 중심으로 모인 급진 개혁파(혁명파) 사대부 세력은 우왕과 창왕을 잇따라 폐하고 공양왕을 세운 후, 전제 개혁을 단행하여 과전법을 마련하였다(1391).

③ 공민왕(1351~1374)은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고(1366), 승려 신돈을 등용하여 권문세족이 부당하게 빼앗은 토지와 노비를 본래의 소유주에게 돌려주거나 양민으로 해방시켰다.

④ 조선 전기에는 세종 때에 마련된 공법(1444)에 따라 풍흉을 고려하여 전세를 차등 있게 징수하는 연분 9등법을 실시하였다.

16. (가)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 ② 단군왕검의 건국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 ③ 김부식 등이 왕명으로 편찬한 기전체 사서이다.
- ④ 사초, 시정기 등을 바탕으로 실록청에서 편찬하였다.
- ⑤ 고구려 건국 시조의 일대기를 서사시 형태로 서술하였다.

정답: ③

\* 삼국사기

인종 때에는 김부식 등이 왕명을 받아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1145). 삼국사기는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역사서로서, 고려 초에 쓰여진 구삼국사(단군 조선 ~ 고구려 ~ 고려로 이어져 온 역사 계승 의식으로 추정).를 기본으로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하여 기전체로 서술하였다. 고려는 건국 초부터 고구려 계승 의식을 뚜렷하게 표방하였으나, 중기에 이르러 신라 계승 의식이 강화되었는데, 삼국사기에는 신라 계승 의식이 더 많이 반영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① 조선 정조 때에 유득공은 발해고(1784)에서 남의 신라와 북의 발해를 남북국 시대라 부를 것을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② 충렬왕 때에 일연이 경복 군위 인각사에서 쓴 삼국유사(1281)는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 설화나 전래 기록을 수록하는 등 우리의 고유 문화와 전통을 중시하였으며, 단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 여겨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수록하였다.

이규보의 동명왕편(1193)은 고구려 건국의 영웅인 동명왕의 업적을 칭송한 일종의 영웅 서사시로서, 고구려의 계승 의식을 반영하고 고구려의 전통을 노래하였다.

조선 왕조 실록은 국왕이 죽으면 다음 국왕 때 춘추관을 중심으로 실록청을 설치하고 사관이 국왕 앞에서 기록한 사초, 각 관청의 문서를 모아 만든 시정기 등을 종합, 정리하여 실록을 편년체로 편찬하였다.

17. 다음 글을 쓴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아 물결치듯이 흘러 다니다가 ..... 자기의 본성을 보면, 이 성품에는 본래 번뇌가 없다. 번뇌가 없는 지혜의 성품은 본래 스스로 갖추어져 있어서 모든 부처와 털끝만큼도 다르지 않다. 이를 돈오(頓悟)라고 한다. .... 비록 본래의 성품이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지만 오랜 세월의 습기(習氣)는 갑자기 제거하기 어렵다. 따라서 그 깨달음에 의지해 닦고 점차 익혀 공(功)을 이루고, 오랫동안 성태(聖胎)를 기르면 성(聖)을 이루게 된다. 이를 점수(漸修)라고 한다.

-『수심결(修心訣)』-

- ① 무애가를 지어 불교 대중화에 힘썼다.
- ② 황룡사 9층 목탑의 건립을 건의하였다.
- ③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 하였다.
- ④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여 불교계를 개혁하고자 하였다.
- ⑤ 법화 신앙을 중심으로 강력한 향몽 투쟁을 포방하였다.

정답: ④

\* 선교일치를 추구한 지눌(1158~1210)

무신 집권 이후의 사회 변동기를 지나며 불교계에서도 본연의 자세 확립을 주창하는 새로운 종교 운동인 결사 운동이 일어났다. 지눌은 명리에 집착하는 당시 불교계의 타락상을 비판하였다(정화 운동). 그는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독경과 선 수행, 노동에 고루 힘쓰자는 개혁 운동인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였다. 송광사에 중심을 둔 수선사 결사 운동은 개혁적인 승려들과 지방민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처럼 조계종은 지눌이 수선사를 열면서부터 매우 흥성하였다. 그리하여 고려 후기에 이르러서는 불교계의 중심적인 종파가 되어 많은 승려를 배출하였다.

지눌은 선과 교학이 근본에 있어 둘이 아니라는 사상 체계인 정혜쌍수를 사상적 바탕으로 철저한 수행을 선도하였다. 또, 지눌은 내가 곧 부처라는 깨달음을 위한 노력과 함께, 꾸준한 수행으로 깨달음의 확인을 아울러 강조한 돈오점수를 주장하였다.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포용하여 교와 선의 대립을 극복하고자 한 지눌의 논리는 고려 불교가 지향하던 선교 일치 사상을 완성한 것이었다.

① 신라의 삼국 통일을 전후한 시기에 원효(617~686)는 무애가(無碍歌)를 지어 부처의 가르침을 알기 쉽게(나무아미타불만 외쳐도 서방정토에 갈 수 있다: 정토 신앙) 일반 대중에게 전파하였다.

② 선덕여왕(632~647) 때에 자장 율사의 건의로(643) 이민족을 물리치기 위해 황룡사 9층 목탑이 건립되었다(645).

③ 11세기에 종파적 분열상을 보인 고려 불교계에 문종의 왕자로서 승려가 된 의천(1055~1101)은 원효의 통합 불교 사상(일심, 화쟁)을 계승하여 교관겸수를 부르짖으며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 하였다.

⑤ 지눌과 비슷한 시기에 요세(1163~1245)는 백성의 신앙적 욕구를 고려하여 강진 만덕사(백련사)에서 자신의 행동을 진정으로 참회하는 법화 신앙에 중점을 둔 백련결사를 제창하였다

18.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국경 지대인 양계에 설치되었다.
- ②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여 창설되었다.
- ③ 최씨 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었다.
- ④ 신기군, 신보군, 향마군으로 구성되었다.
- ⑤ 유사시에 향토 방위를 맡는 예비군이었다.

정답: ③

\* 삼별초에 대하여

삼별초는 1219년(고종 6) 최충헌의 정권을 계승한 최우가 도둑 방지 등 치안유지를 위해 설치한 야별초에서 비롯된 것으로, 별초란 '용사들로 조직된 선발군'이라는 뜻이다.

그 뒤 야별초에 소속한 군대가 증가하자 이를 좌별초·우별초로 나누고, 몽골 병사와 싸우다 포로가 되었다가 탈출한 병사들로 신의군을 조직, 이를 좌·우별초와 합하여 삼별초의 조직을 만들었다.

삼별초는 경찰 및 국왕 시위를 하는 공적인 준군사집단이며 동시에 무신정권의 전위로서 다분히 사병적인 요소도 있었다. 그러나 항몽전에서는 그 선두에서 유격전술로 몽골병을 괴롭혔다.

무신정권이 무너지고 몽골과 강화가 성립되어 고려정부가 개경으로 환도하자 승화후 온(溫)을 내세워 배중손의 지휘 하에 진도에서 항쟁하였으나 김방경, 홍다구가 이끄는 여몽연합군에 의해 패퇴하였다. 배중손이 진도 전투에서 전사하고 승화후 온이 생포되어 죽자 김통정이 삼별초를 지휘하며 제주도로 옮겨가며 개경정부 및 몽골과 대항하여 항쟁하다 결국 진압되었다(1270~1273).

① 고려의 지방군은 국경 지방인 양계에 주둔하는 주진군과 5도의 일반 군현에 주둔하는 주현군으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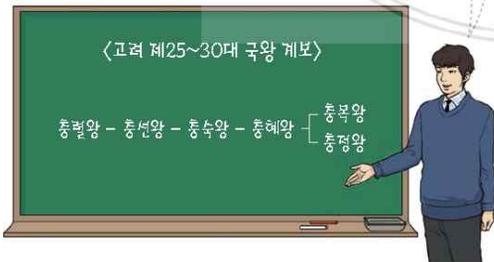
② 고려 정종 때에 거란을 대비하여 특수 부대인 광군을 편성하였다(947)

④ 12세기 초 부족의 통일을 이룬 여진족이 고려의 국경까지 남하하면서 고려군과 자주 충돌하였다. 고려는 윤관의 건의를 받아들여 신기(기병), 신보(보병), 향마(승병)군으로 구성된 별무반(1104)을 편성한 다음, 여진족을 북방으로 밀어 내고 동북 지방 일대에 9개의 성을 쌓았다(1107).

⑤ 조선 후기에 지방군은 속오군 체제로 정비되어 위로는 양반에서부터 아래로는 노비에 이르기까지 편제되어,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향촌 사회를 지키다가 적이 침입해 오면 전투에 동원되었다.

19.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2점]

고려 시대에는 이와 같이 왕의 시호(諡號)가 '충(忠)'자로 시작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에 대해 말해 볼까요?



- ①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이 건립되었습니다.
- ② 서얼이 규장각 검서관에 등용되기도 하였습니다.
- ③ 변발과 호복이 지배층을 중심으로 유행하였습니다.
- ④ 세계 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가 제작되었습니다.
- ⑤ 망이·망소이가 가혹한 수탈에 저항하여 봉기하였습니다.

정답: ③

\* 원의 간섭기(1270~1351) 때의 역사적 사실

몽골과 강화(1270)한 이후, 고려는 두 차례 (1274, 1281) 실시된 원의 일본 원정에 군대와 물자의 제공을 강요받았다. 또, 철령 이북에 쌍성총관부, 자비령 이북에 동녕부, 제주도에 탐라총관부라는 원의 통치 기구가 설립되어 넓은 영토를 빼앗기기도 하였다.

고려의 국왕은 원의 공주와 결혼하여 원 황제의 부마가 되었고, 왕실의 호칭과 격이 부마국에 걸맞은 것으로 바뀌었다(폐하->전하, 태자->세자, ..조.종->충..왕). 아울러 관제도 개편(중서문하성+상서성->첨의부, 6부->4사, 중추원->밀직사)되고 격도 낮아졌다.

원은 일본 원정을 준비하기 위하여 설치했던 정동행성을 계속 유지하여 내정 간섭 기구로 삼았고, 군사적으로는 만호부를 설치하여 고려의 군사 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다루가치라는 감찰관을 파견하고 순마소(경찰 기

능)를 통하여 내정을 간섭하였다.

한편, 원은 공녀라 하여 고려의 처녀들을 뽑아 갔으며(결혼도감 주관), 금, 은, 베를 비롯하여 인삼, 약재 등 특산물을 징발하여 농민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또, 매를 징발하기 위해서 응방이라는 특수 기관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사회적으로도 원과 강화를 맺은 이후 두 나라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사람과 물자의 왕래가 많아졌고, 문물 교류가 활발하였다. 이에 따라 고려 사회에는 몽골풍(소주, 설령탕)이 유행하여 변발, 몽골식 복장(호복, 연지, 족두리, 장도), 몽골어(수라, ~치)가 궁중과 지배층을 중심으로 널리 퍼졌다.

① 조선 중기 중종 때(1543)에 풍기 군수 주세붕이 최초로 백운동 서원을 건립하였다.

② 조선 후기 정조(1776~1800) 때에는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등 서얼 출신이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되어 제각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④ 조선 초 태종 때에 김사형, 이회 등을 시켜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1402)를 만들었다.

⑤ 무신 정변(1170) 초기 공주 명학소에서는 무거운 조세 부담에 시달리던 주민들이 망이, 망소이 형제를 중심으로 봉기하였다(1176). 이들은 한때 충청도 일대를 점령했으며, 개경까지 공격하려고 하였다.

20. (가)와 관련된 세시 음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우리나라의 세시 풍속

일 년 중 밤이 가장 긴 날, (가)

1. 개관  
 이날은 태양의 부활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민간에서 '작은설' 혹은 '아세(亞歲)'라고 불렀다. 또 이날은 날씨가 춥고 밤이 길어 호랑이가 교미한다고 하여 '호랑이 장가가는 날'이라고도 하였다.

2. 문헌 자료  
 관상감에서는 임금에게 (새해) 달력을 올린다. 그러면 임금은 백관에게 황색 표지 달력과 백색 표지 달력에 '동문지보(同文之寶)'를 찍어 하사하였다.  
 -『동국세시기』-



정답: ②

\* 동짓날의 세시풍속

**동지(冬至):** 대설(大雪) 15일 후, 소한(小寒) 전까지의 절기로, 양력 12월 22일경으로 일 년 중 가장 밤이 긴 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작은 설'이라 해서 크게 축하하는 풍속이 있었다. 궁중에서는 이 날을 원단(설날)과 함께 으뜸되는 축일로 여겨 군신과 왕세자가 모여 '회례연'을 베풀었으며, 해마다 중국에 예물을 갖추어 '동지사'를 파견하였다. 또 지방에 있는 관원들은 국왕에게 글을 올려 축하하였다. 민가에서는 붉은 팥죽을 쑤어 먹고 집안 곳곳에 뿌렸다.

- ① 송편은 추석(음력 8.15) 때의 세시 음식이다.
- ② 화전은 삼짚날(음력 3.3) 때의 세시 음식이다.
- ④ 오곡밥은 정월 대보름(음력 1.15) 때의 세시 음식이다.
- ⑤ 수리취떡은 단오(음력 5.5) 때의 세시 음식이다.

21. 다음 정책을 시행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2점]

- 왕 16년, 옛 땅의 회복을 논의하였다. 소다로(所多老)의 땅이 넓고 기름지며 적들이 오가는 요충지이기 때문에, 옛 터전의 북쪽인 회질가(會叱家)의 땅에다 벽성(壁城)을 설치하고, 남도(南道)의 민호(民戶)를 이주시켜 채우고 경원 도호부를 옮겨 판관과 토관을 두었다.
- 왕 16년 2월, 함길도 감사 김종서가 경원·영북진 두 고을에 모두 판관을 둘 것을 청하니, 즉시 이조에 명을 내려 두 의정(議政)에게 동의를 얻어 문무가 구비된 자를 택하여 보고하게 하였다.

- ① 독창적인 문자인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
- ②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을 반포하였다.
- ③ 궁중 음악을 집대성한 악학궤범을 편찬하였다.
- ④ 균역법을 실시하여 균역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다.
- ⑤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을 실시하였다.

정답: ①

\* 북방을 개척한 세종의 정책

- 북방을 개척하고 사민 정책을 실시하며, 김종서(6진 개척) 등을 통해 세종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선 세종(1418~1450)의 가장 큰 업적으로 백성들이 쉽게 글을 쓰고 배울 수 있도록 한글(훈민정음)을 창제(1443)하여 반포하였다(1446). 또한 한글을 보급시키기 위하여 왕실조상의 덕을 찬양하는 용비어천가(1447), 부처님의 덕을 기리는 월인천강지곡(1449, 후일 세조가 지은 석보상절과 합쳐져 월인석보가 탄생하게 됨) 등을 지어 한글로 간행하였다.

②, ③ 성종(1469~1494) 때에 세조 때(1455)부터 시작된 경국대전이 완성되었고(1484년 완성, 1485년 반포), 성현 등은 음악서인 악학궤범(1493)을 편찬하였다.

④ 영조(1724~1776)는 백성들의 균역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1750년 균역법(군포를 1년에 2필에서 1필로 줄여줌)을 시행하였다.

⑤ 세조(1455~1468) 때에 현직관료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을 실시하였다(1466)

22.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직역이 대대로 세습되었다.
- ② 지방의 행정·사법·군사권을 행사하였다.
- ③ 6조 직계제의 실시로 권한이 약화되었다.
- ④ 유향소의 우두머리로 향회에서 선출되었다.
- ⑤ 호장, 기관, 장교, 통인 등으로 분류되었다.

정답: ②

\* 조선 시대의 수령에 대하여

조선은 전국을 8 도로 나누고, 고을의 크기에 따라(부·목·군·현) 지방관의 등급을 조정하고(부윤, 부사, 목사, 군수, 현령, 현감), 작은 군현을 통합하여 전국에 약 330여 개의 군현을 두었다.

나아가, 전국의 주민을 국가가 직접 지배하기 위하여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하였다. 수령은 왕의 대리인으로, 지방의 행정·사법·군사권을 가지고 있었고, 수령 7사라 하여 인사교과에 반영되는 주요 7가지 업무가 있는데, 성농상(농업 진흥), 간활식(치안 확보), 증호구(인구 증가), 균부역(부역을 균등히), 간사송(지역민 재판), 흥학교(학교 진흥), 수군정(군대 정비)이 있다.

이렇게 수령의 권한을 강화한 반면, 향리는 호장, 기관, 장교, 통인 등으로 분류하며 수령의 행정 실무를 보좌 하는 세습적인 아전으로 격하시켰다.

한편, 수령을 지휘, 감독하고 백성의 생활을 살피기 위하여 전국 8도에 관찰사(감사, 도백)를 파견하였고, 수시로 암행어사를 지방에 보내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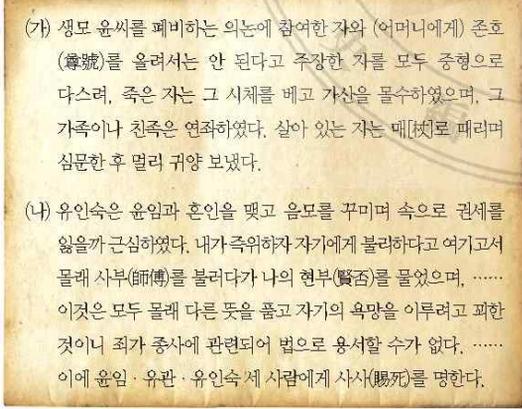
수령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5년(1800일)이고, 상피제로 인하여 출신지에 임용되지 못했다.

관찰사 임기는 함경도, 평안도를 제외하고 초기에 1년(360일)이다가 2년으로 늘어났다.

① 태종과 세조 때에 실시된 6조 직계제는 정치 업무를 6조에서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왕에게 올려 국왕의 재가를 받아 시행하게 하는 제도이다.

④ 조선 시대에 사족(士族)들이 설치한 향촌 자치 기구인 유향소(->향청)는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하며 향촌 사회의 풍속을 바로잡기 위한 기구로서 향회(사족들의 회의)에서 선출된 좌수, 별감 등이 회의를 주도하였다.

23.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서인이 반정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다.
- ② 위훈 삭제를 주장한 조광조 일파가 축출되었다.
- ③ 정여립 모반 사건을 계기로 동인이 피해를 입었다.
- ④ 효종이 죽자 자의대비의 복상 문제로 예송이 전개되었다.
- ⑤ 사림이 이조전랑 임명을 둘러싸고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

정답: ②

\* 갑자사화(1504)와 을사사화(1545) 사이의 역사적 사실

성종 때부터 중양에 진출하면서 사림은 정치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과거를 통하여 중양에 진출한 사림 세력은 주로 전랑과 3사의 언관직을 차지하고 훈구 세력의 비리를 비판함으로써 그들의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하였다. 성종이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사림 세력을 중용하였기 때문에, 훈구 세력과 사림 세력이 균형을 이룰 수 있었다.

이어서 연산군은 훈구 대신과 사림을 모두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였다. 특히, 사림 세력의 분방한 언론 활동을 억제하였다. 이에 따라, 무오사화(1498, 조의제문 사초 문제), 갑자사화(1504, 폐비 윤씨 사사 문제)를 겪으면서 영남 사림의 대부분이 몰락하였다. 연산군은 이후 언론을 극도로 탄압하고 재정을 낭비하는 등 폭압적인 정치를 단행하다가 결국 중종반정으로 쫓겨났다(1506).

중종은 사림을 다시 등용하여 유교정치를 일으키려 하였다. 당시 명망이 높았던 김굉필의 문인 조광조가 중용되면서 천거제의 일종인 현량과를 통하여 사림이 대거 등용되었다. 이들은 3사의 언관직을 차지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공론이라 표방하면서 경연의 강화, 언론 활동의 활성화, 위훈 삭제, 소격서의 폐지, 소학의 보급, 방납의 폐단 시정 등 급진적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신들의 반발로 말미암아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 세력은 대부분 제거되었다(기묘사화, 1519).

그 뒤 중종이 훈구 대신들을 견제하기 위하여 다시 사림을 등용하기도 하였으나, 명종이 즉위하면서 윤원형(소윤), 윤임(대윤) 등 외척간의 권력다툼에 휩쓸려 사림 세력은 윤임 일파와 함께 또다시 정계에서 밀려났다(을사사화, 1545).

그러나 사림 세력은 서원과 향약을 통하여 향촌 사회에서 꾸준히 세력을 확대해 나가다, 1567년 선조가 즉위하면서 대거 중앙 정계로 진출하였으나, 이조 전랑의 임명 문제(김효원과 심충겸)와 공론을 둘러싸고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분열되었다(1575).

- ① 서인은 인조반정을 일으켜 광해군 복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하였다(1623)
- ③ 선조 때(1589)의 기축옥사(정여립 모반 사건 관련 동인에 대한 옥사)로 서인이 일시 집권하였다.
- ④ 현종 때에 효종의 왕위 계승에 대한 정통성과 관련하여 자의대비의 복상기간을 놓고 서인과 남인 사이에 두 차례의 예송(기해예송-1659, 갑인예송-1674)이 발생하였다.

24. (가)~(라)의 문화유산을 제작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3점]



- ① (가) - (나) - (다) - (라)
- ② (가) - (나) - (라) - (다)
- ③ (나) - (가) - (다) - (라)
- ④ (나) - (가) - (라) - (다)
- ⑤ (다) - (나) - (가) - (라)

정답: ③

\* 역대 우리나라 도자기 변천사

우리나라 도자기의 발달 순서는

토우.인물토기(삼국)->비색청자(고려전기)->상감청자(고려중기)->분청사기(조선초기)->순백자(조선중기)->청화.철화백자(조선중.후기)

(가) 청자 상감 운학문 매병(국보 68호): 운학문(구름위에 학이 노니는 문양)으로 유명한 상감청자의 대표적인 걸작이다(간송 박물관 소장).

(나) 말탄 무사 모양의 빨잔: 김해 출토(국보 275호). 가야 토기로 추정되지만 현재 경주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다) 분청사기 조화어문 편병(국보 178호): 조선 전기

(라) 백자 철화 포도 원숭이문 향아리(국보 93호)

25. 다음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점]



토지를 측량하여 기록한 대장으로 필지의 지번이 5결마다 천자문 순서에 따른 자호(字號)로 표기되었다. 또한 필지마다 측량 방향, 등급, 모양, 가로와 세로의 길이, 경작 여부, 소유자 명의 등이 기재되었다.

<보기>

- ㄱ. 대한 제국 때 처음으로 작성되었다.
- ㄴ. 20년마다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 ㄷ. 조세 부과와 근거 자료로 활용되었다.
- ㄹ. 지계이문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발급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③

\* 토지대장 양안

고대에 신라는 촌락의 토지 크기, 인구 수, 소와 말의 수, 토산물 등을 파악하는 민정문서를 만들고, 조세, 공물, 부역 등을 거두었으며, 매년 변동 사항을 조사하여 3년마다 문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민정문서에 토지는 논, 밭, 촌주위답, 내시령답 등 토지의 종류와 면적을 기록하고, 사람들은 인구, 가호, 노비의 수와 3년 동안의 사망, 이동 등 변동 내용을 기록하였다. 그 밖에, 소와 말의 수, 뽕나무, 잣나무, 호두나무의 수까지 기록하였다.

특히, 사람은 남녀별로 구분하고, 16세에서 60세의 남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나이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호(가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 상상호(上上戶)에서 하하호(下下戶)까지 9등급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즉 호구와 토지를 한 문서에 기입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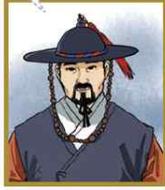
고려 시대에 접어들어 호적과 양안이 분리되었고, 연령 등급제가 폐지되었으며, 절대면적 단위인 결부법으로 표시된 토지에 대한 조세부과를 좀더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품전(田品: 토지 등급)이 설정되었다.

조선 시대의 경작지의 소유자와 크기를 적은 토지대장인 양안은 국가의 조세 부과와 자료일 뿐 아니라 개인의 토지 소유를 증명하는 문서이다. 원칙적으로 20년마다 작성한다.

㉠, ㉡ 대한제국은 조세 수입을 늘리고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해 양지아문(1898)을 설치하여 양전 사업을 하고, 지계아문(1901)을 통하여 근대적 토지 소유 물건인 지계를 발급하였다.

26. (가), (나)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나는 [가]의 도사(都事)입니다. 반역죄, 강상죄 등을 저지른 죄인을 추국할 때 왕명을 받들어 죄인을 압송하고, 형을 집행하기도 합니다.



나는 [나]의 주서(注書)입니다. 도승지의 지휘를 받아 문서의 기록과 관리를 담당하고, 매일 국왕을 수행하면서 날짜별로 그 언행을 기록합니다.



- ① (가) - 5품 이하의 관원에 대한 서경권을 가졌다.
- ② (가) - 왕에게 경서와 사서를 강론하는 경연을 주관하였다.
- ③ (나) - 정책을 심의·결정하면서 국정을 총괄하였다.
- ④ (나) - 왕명 출납을 담당하는 왕의 비서 기관이었다.
- ⑤ (가), (나) - 소속 관원을 대간이라고도 불렀다.

정답: ④

\* 의금부와 승정원

조선의 중앙 관부는 정책을 심의·결정하며 국정을 총괄하는 의정부(장관 영의정)와 그 아래에 왕의 명령을 집행하는 행정 기관인 6조(장관 판서)를 중심으로 편성되었고, 왕권을 견제하는 3사와 왕권을 뒷받침하는 승정원(장관 도승지)과 의금부(장관 판사)도 주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3사에서 사헌부는 발해의 중정대, 고려의 어사대와 같은 감찰 역할을 주로 담당하였다. 백관 규찰, 기강·풍속 정립, 사법권, 경연, 서경·간쟁·봉박 등을 담당하였다. 장관은 대사헌(종2품)이다. 사간원은 태종 때에 문하부에서 독립되어 설치된 기구로 주로 국왕에 대한 간쟁, 신료에 대한 탄핵, 경연, 서경·간쟁·봉박을 담당하였다. 장관은 대사간(정3품 당상관)이다. 홍문관은 일명 옥당으로 불리우며 성종 때에 집현전 계승하여 설치되었고, 주로 왕의 자문 및 경연 강의, 경서·사적의 관리, 문한(文翰)의 처리를 담당하였다. 장관은 대제학(정2품)이다.

이들 3사는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고, 정사를 비판하며, 문필 활동을 하면서 언론 기능을 담당하였다. 특히 사헌부와 사간원은 대간(臺諫)이라 불렸는데, 5품 이하의 임명된 관리의 신분·경력 등을 심의·승인하는 서경, 왕께 간언을 하는 간쟁, 왕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봉박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3사의 언론은 고관은 물론이고 왕이라도 함부로 막을 수 없었고, 이를 위한 여러 규정이 관행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와 같은 3사의 기능 강화는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선 시대 정치의 특징적인 모습이다.

이 밖에, 반역·강상죄 등의 국가의 큰 죄인을 다스리는 국왕 직속의 의금부(실무자 도사), 왕의 비서기관으로 왕명을 출납하는 승정원(실무자 주서), 서울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한성부, 역사서 편찬과 보관을 담당하는 춘추관, 최고 교육 기관인 성균관 등이 있었다.

27. (가)~(라) 전투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2점]



- ① (가) - (나) - (다) - (라)
- ② (가) - (나) - (라) - (다)
- ③ (나) - (가) - (다) - (라)
- ④ (나) - (가) - (라) - (다)
- ⑤ (다) - (나) - (가) - (라)

정답: ③

\* 임진왜란

1592년 4월 14일, 정명가도를 내걸고 왜군이 부산진과 동래성으로 침략해 오자, 정발과 송상현 등이 힘껏 싸웠으나 막지 못하고 성이 함락되고 말았다. 그 후, 왜군은 세 길로 나누어 북쪽으로 쳐들어왔다.

조선 정부는 충주에 방어선(신립 장군이 탄금대에서 배수의 진을 치)을 치고 그들의 북상을 막으려 하였으나, 이 역시 실패하고 말았다(4.26). 왜군이 2주 만에 한양 근처에 육박하자 선조는 의주로 피란하였다. 왜군은 평양과 함경도까지 북상하여 한반도 전역을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였다.

조선은 육전에서와 달리 해전에서는 곳곳에서 왜군에 큰 타격을 입혔다. 이순신이 이끄

는 수군이 옥포에서 첫 승리를 거두고, 이어서 거북선과 판옥선을 앞세워 사천, 당포, 한산도 앞 바다(한산 대첩, 1592.7, 학익진으로 유명) 등 여러 곳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조선은 수군의 활약으로 제해권을 장악하여, 왜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전라도 곡창 지대와 황해안을 지킬 수 있었다.

수군이 해전에서 승리한 것과 때를 같이하여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 향토를 방어하고 조국을 구하려고 하였다. 향토 지리에 익숙한 의병은 그에 알맞은 전술과 전략을 개발하여 적은 병력으로도 적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의병은 경상도 의령에서 곽재우(홍의장군)가 처음 일으킨 후 조현, 고경명, 정문부, 유정(사명대사) 등이 여러 지방에서 왜군과 싸워 이겼고, 김시민은 진주에서 적군 2만명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었으나 장렬히 전사하였다(진주대첩, 1592.10).

수군이 승리를 거두고 의병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무렵, 요청한 명의 원군까지 도착하여 조선은 왜군에 반격을 가하여 평양성에서 조.명 연합군은 크게 승리하였으나(1593.1.6), 벽제관에서 일본군은 명군을 대파하여(1593.1.25.) 위기에 빠졌다. 다행히 권율이 해주산성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해주대첩, 1593.2)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에 경상도 해안 지방으로 밀려났던 왜군은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 휴전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3년간을 끌어 오던 화의 교섭이 실패하자, 왜군은 다시 공격해 왔다(정유재란, 1597). 임진년과 달리 이번에는 조선군도 군비를 잘 갖추고(1594년 훈련도감 설치) 명군과 협조하여 왜군을 쉽게 물리칠 수 있었다. 또, 물러났던 이순신이 다시 기용되어 명량에서 왜군을 대파하였다(1597.9).

마침 도요토미가 사망하고 전세도 불리해지자 왜군은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 이순신은 퇴각하는 왜군을 노량에서 격멸하였으나, 적의 유탄에 맞아 장렬하게 전사하며(1598.11.19) 전쟁은 끝이 났다.

28. 밑줄 그은 '이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제시된 자료는 이 왕이 동생인 명안 공주에게 보낸 한글 편지입니다. 그의 재위 시기에는 경신환국 등 여러 차례 환국이 발생하였습니다.



- ① 나선 정벌에 조종 부대가 파견되었다.
- ② 정과의 경계를 정한 백두산정계비가 세워졌다.
- ③ 문신 재교육을 위한 초계문신제가 시행되었다.
- ④ 시전 상인의 특권을 축소하는 신해통공이 실시되었다.
- ⑤ 봉당 정치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해 탕평비가 건립되었다.

정답: ②

\* 숙종(1674~1720) 대의 역사적 사실

숙종(1674~1720)은 인사 관리를 통하여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는 탕평론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한 당파를 일거에 내몰고 상대 당파에게 정권을 모두 위임하는 편당적인 인사 관리로 일관하여 3차례(경신, 기사, 갑술)의 환국이 일어나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였다(일당 전제화).

환국을 왕이 직접 나서서 주도함에 따라, 외척이나 종실 등 왕과 직결된 집단의 정치적 비중이 커졌다. 정치 권력은 점차 고위 관원에게 집중 되었으며, 언론 기관이나 재야 사족의 정치 참여가 점차 어려워짐에 따라 봉당 정치의 기반도 무너졌다.

그렇지만 강화된 왕권을 통하여 마지막 5군영인 금위영(궁궐방위)을 설치하고(1682), 청과 간도 지역의 경계를 정한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고(1712), 대동법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였으며(1708), 상평통보(1678)를 발행하는 등의 업적을 남기었다.

① 효종(1649~1659) 때에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 군대를 양성하던 중, 연해주 흑룡강 방면으로 남하하는 러시아 세력을 격퇴키 위해 청이 조선에 원병을 요청하자, 2차례의 정벌(나선 정벌)에 나서 큰 전과를 올렸다(1차: 1654-변급, 2차: 1658-신유).

③, ④ 정조(1776~1800)는 신진 문신을 재교육을 위해 초계문신제를 실시하였으며, 신해통공(1791) 조치로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난전권을 폐지하여 자유스런 상업 발달을 도모하였다.

⑤ 영조(1724~1776)는 자신의 탕평책을 널리 알리고 봉당정치의 폐해를 경계하고자 성균관 앞에 탕평비를 세웠다(1742).

29.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전기수(傳奇叟)가 동대문 밖에 살고 있었다. 한글로 된 소설을 잘 읽었는데, 「속향전」, 「소대성전」, 「십청전」, 「설인귀전」 같은 것들이었다. …… 전기수의 책을 읽는 솜씨가 뛰어나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보였다. 그가 읽다가 아주 낱어려워 꼭 들어야 할 대목에 이르러 갑자기 읽기를 그치면 사람들은 그 다음 대목을 듣고 싶어서 앞다투어 돈을 던져 주었다. 이것이 이른바 요전법(遊錢法)이다.

- 「추재집」 -

\*전기수(傳奇叟): 이야기 책을 전문적으로 읽어 주던 사람

- ① 벽란도에서 무역을 하는 송의 상인
- ②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납부하는 공인
- ③ 담배 등의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
- ④ 물주의 자금으로 광산을 경영하는 덕대
- ⑤ 여러 장시를 돌며 물품을 판매하는 보부상

정답: ①

\* 전기수(이야기꾼)가 활동하던 조선 후기 경제상

- 조선 후기에는 소설이 크게 증가하여 향유층이 확대되어 점차 대중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때에 소설을 읽어 주고 일정한 보수를 받던 전기수(傳奇叟)가 등장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대동법의 실시로 인하여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의 등장으로 인해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었다.

농민들은 시장에 팔기 위한 작물을 재배하여 가게 수입을 증가시켰다. 장시가 점차 증가하여 18세기 중엽에 이르러서는 전국에 1000여 개소가 개설되었고, 보부상들이 활약하였다.

상품의 유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농민은 쌀, 목화, 채소, 담배, 인삼, 약초 등을 재배하여 팔았다.

조선 후기의 광산 경영은 경영 전문가인 덕대가 대개 상인 물주에게 자본을 조달받아 채굴업자와 채굴 노동자, 제련 노동자 등을 고용하여 광물을 채굴하고 제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① 고려 시대에 국내 상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면서 송, 요 등 외국과 무역도 활발해졌다. 예성강 어귀의 벽란도는 대외 무역의 발전과 함께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30.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역사 용어 해설**

(가)

고려 시대의 재인(才人)과 화척(禾尺)을 조선 초기에 하나로 합쳐서 부른 이름이다. 고려 시대의 재인과 화척은 유량 생활을 하던 존재로 천인 취급을 받았다. 세종 때에는 천하게 여겨 지던 재인이나 화척 대신 고려 시대 일반 백성을 일컫었던 (가) (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 ①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되었다.
- ② 장례원을 통해 국가의 관리를 받았다.
- ③ 사신을 수행하면서 통역을 담당하였다.
- ④ 일제 강점기에 형평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⑤ 청요직 진출을 요구하는 상소를 집단으로 올렸다.

정답: ④

\* 백정에 대하여

조선 시대 백정의 원류인 고려 시대의 양수척(揚水尺, 버들고리를 만들어 파는 자), 화척(禾尺, 짐승을 잡는 자), 재인(才人, 기예가 있는 자)은 대개 거란족이나 여진족으로 귀화한 사람들이었는데 신랑역천보다도 천한 취급을 받았다.

이들은 일반 농민들부터 배척당하여 자신들만의 마을을 이루어 거주하며 도살 및 고기 파는 일, 가족신을 만드는 일, 유기 그릇 따위를 만드는 일에 종사하였다. 국가는 이들에게 아무런 부담도 지우지 않았고 호적에도 등록하지 않았는데, 그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상투를 틀거나 두루마기를 입을 수 없게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세종 대에 고려시대부터 내려오던 양수척·화척들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이들에게 농토를 주고 백정이란 칭호를 붙인 것이다. 백정은 도살을 주로 하면서 피혁과 유기(魚翅)의 제조를 겸하였으며, 이 일을 세습하면서 집단적으로 특수부락을 이루고 살았다. 갑오개혁(1894) 때 법적으로 신분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그 동안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백정도 평등한 지위를 얻었으나 백정 출신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냉대는 일제 강점기에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 총독부는 새 호적을 만들면서 백정 출신을 호적에 '도한'으로 써 넣거나 붉은 점을 찍어 차별하였다. 학교 입학 통지서에도 백정 신분을 밝힘으로써 입학이 거부되거나 중도에 학교를 그만두는 일도 많았다.

1920년대 백정 출신들은 경상남도 진주에서 형평사를 창립하고(1923), 평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형평 운동을 펼쳐 나갔다. 그러나 아직도 신분 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대중은 여전히 백정 출신을 차별하였으며, 형평 운동에 반대하는 반형평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①, ② 가장 천한 신분층인 노비는 매매·상속·증여의 대상이었으며, 장례원을 통해 국가의 관리를 받았다.

③ 중인 계층 중 역관은 사신을 수행하면서 통역을 담당하였다.

⑤ 영·정조 때에 서얼을 어느 정도 등용하자 이들은 집단적으로 상소를 올려 홍문관 같은 청요직으로의 진출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신분 상승 운동을 전개하였다(서얼통칭운동). 그리하여 1851(철종 2년) 신해허통 조치로 사관(四館) 등용에 조치가 취하여져 서얼 문과 합격생의 승문원 분관이 허용되어 완전한 청요직 허통이 이루어졌다(반면에 기술직 중인들의 통칭 운동은 실패).

31. (가), (나)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가) 평서대원수는 급히 격문을 띄우노니 우리 관서(關西)의 부로 자제와 공사천민 모두 이 격문을 들으라. …… 심지어 권세 있는 집의 노비들도 관서 사람(西人)을 보면 반드시 평안도놈(平漢)이라 일컫는다. 관서 사람으로서 어찌 원통하고 억울하지 않겠는가. …… 이제 격문을 띄워 먼저 여러 고을의 수령에게 알리노니, 절대로 동요치 말고 성문을 활짝 열어 우리 군대를 맞이하라.

(나) 임술년 2월 19일, 진주 백성 수만 명이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르고 손에는 나무 몽둥이를 들고 무리를 지어 진주 읍내에 모여 서러들의 가옥 수십 호를 불사르고 부수니, 그 움직임이 결코 가볍지 않았다.

- ① (가) - 황토현에서 관군에게 승리를 거두었다.
- ② (가) - 사건의 수습을 위해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 ③ (나) - 삼정이정청 설치의 계기가 되었다.
- ④ (나) - 지역 차별에 반발한 흥경래가 주도하여 봉기하였다.
- ⑤ (가), (나) - 남접과 북접이 연합하여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

정답: ③

\* 흥경래의 난(1811)과 진주민란(1862)

(가) 흥경래의 난: 세도정치에 시달리던 농민들과 부당한 차별 대우에 불만을 품어 오던 평안도 지방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여, 몰락한 양반인 흥경래 등이 평안도에서 일으킨 농민봉기였다(1811).

이들은 처음 가산에서 난을 일으켜 선천, 정주 등을 별다른 저항없이 점거하였다. 한때는 청천강 이북 지역을 거의 장악하였으나 정주성 싸움에서 패하여 진압되었다 5개월 만에 평정되었다.

흥경래의 난은 평안도의 농민이 하나로 뭉쳐 탐관오리의 착취와 지방 차별에 반대한 농민 항쟁이었다. 이 난은 평안도 지역에 한정되어 일어났고, 지도자들이 농민층을 조직적으로 끌어들이 개혁안을 내놓지 못함으로써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정부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그 뒤에 발생한 농민봉기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나) 진주민란: 세도정치 하 농민봉기는 철종 때에 가장 심하여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 북으로는 함흥, 남으로는 제주도까지 확대되었다(1862년 임술농민봉기).

이 때 진주에서 일어난 농민봉기(1862)는 경상 우병사 백낙신과 향리들의 수탈(엄청난 환곡 전횡)에 견디다 못한 농민들이 몰락한 양반 출신인 유계춘 등을 중심으로 일으킨 것이었다.

안핵사로 파견된 박규수는 민란의 원인이 삼정문란에 있다고 보고 그 수습책을 삼정이정에서 찾아 삼정이정청(1862)이 설립되어 이 정청은 여러 의견을 검토한 뒤 군정과 전정은 옛 제도를 기본으로 그 폐단만을 고치며, 환곡은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토지에 부과하는 '파환귀결'을 방법으로 내놓았다. 삼정이정청은 <삼정이정절목>을 책으로 내면서 철폐되고, 그 뒤 삼정 업무는 비변사에서 관장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이 못되었다.

①, ⑤ 동학농민운동(1894) 1차 봉기 때에 남접의 농민군은 황토현에서 감영군에게 크게 승리하였으나, 2차 봉기 때에는 남접과 북접이 연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식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에게 우금치에서 크게 패하였다.

32.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점]

이 말은 고종의 즉위로 집권한 (가) 이/가 정치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 의 어록**

- "나는 권력을 끝어다 저척을 삼개으며 태산을 깎아 내려 평지를 만들고, 또한 남대문을 3층으로 높여려 하는데 여러 공들은 어피시오?"
- "전설로 백성에게 해되는 것이 있으면 비록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 ① 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하였다.
- ② 경복궁 중건을 위해 원납전을 징수하였다.
- ③ 대전회통을 편찬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 ④ 전국의 서원을 47개소만 남기고 모두 철폐하였다.
- ⑤ 환곡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사창제를 실시하였다.

정답: ①

\* 흥선 대원군의 개혁(1863~1873)

19세기 중엽 조선 사회는, 안으로는 세도 정치에 저항하는 민중 세력이 성장하고 있었고, 밖으로는 일본과 서양 열강이 침략해 오고 있었다. 고종의 즉위(1863)로 정치적 실권을 잡은 흥선 대원군은 왕조의 위기를 극복하고 실추된 왕권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즉, 능력 위주의 인재 등용, 경복궁 중건, 비변사 폐지,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 회복, 대전회통과 육전조례의 법전 편찬 등으로 왕권을 강화하였다.

**경복궁 중건의 부작용**

원납전(강제 기부금), 당백전을 발행(상평통보의 100배의 명목가치, 물가 상승 야기), 토지 1결당 쌀 1두에 해당하는 화폐 징수, 통행세 징수, 토목 공사에 많은 인력 동원(백성들의 원성), 양반들의 묘지림 벌목(양반들 반발).

또, 봉당의 근거지로 인식되어 온 서원을 47개소만 남기고 철폐하는 동시에, 농민 봉기의 원인으로 지목된 삼정을 개혁하여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려 노력하였다.

**전정:** 양전 실시(은결 색출)

**군정:**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호포제(동포제) 실시

**환곡:** 면민들이 공동 출자로 운영하는 사창제 실시

① 정조 때 국왕 친위 부대로 장용영(장용위:1785->장용영:1793)을 설치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

33.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오페르트가 남연군 묘 도굴을 시도하였다.  
 ㄴ. 양현수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을 물리쳤다.  
 ㄷ. 일본 군함 운요호가 강화도에 접근하여 무력 시위를 하였다.  
 ㄹ. 조선책략 유포에 반발하여 이만손 등이 영남 만인소를 올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①

\* 제너럴 셔먼호 사건(1866.8)과 신미양요 (1871.6) 사이의 역사적 사실

흥선 대원군은 처음 천주교에 비교적 관대하였다.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천주교 선교사를 통하여 프랑스 세력을 끌어들이고자 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유생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1866년부터 6년 동안 천주교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가하였다(병인박해). 이로 인해 9명의 프랑스 선교사와 8천 여 명의 신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프랑스는 바로 이 병인박해 때의 자국의 선교사 처형을 구실로 1866년 9월 조선을 무력으로 침략하였다(병인양요).

프랑스군은 군함 7척에 수병 600여 명을 승선시키고 조선을 침략하여 한강을 봉쇄하고, 그 중의 한 부대는 강화도 갑곶진에 상륙한 뒤 우수한 화력으로 강화읍을 점령하여 외교장각 등을 불태우고 의궤와 금, 은 등을 약탈해 갔다.

한성군이 지휘하는 군대는 서울로 진격하던 프랑스군을 문수산성에서 방어하였고, 양현수가 거느린 군대는 정족산성 전투에서 프랑스군을 격퇴하였다. 그 결과 조선을 침략한 프랑스 함대가 모두 퇴각하였다

병인양요 후 오페르트를 비롯한 서양인들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의 무덤을 도굴하려다가 실패하고 달아난 사건이 일어났다(1868). 이 사건으로 인해 조선에서는 서양인들을 배척하는 기운이 더욱 거세어졌다.

병인양요에 앞서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평양 가까이 다가온 적이 있었다. 이 배에 탄 서양 사람들이 통상을 요구하자, 관리들은 외국과의 통상을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말하며 물러갈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배에서 내려 민가를 약탈하고 관리를 잡아 가두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분노한 평양의 관민은 제너럴 셔먼 호를 불살라버렸다(제너럴 셔먼호 사건, 1866.8).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미국 함대가 강화도에 침입하였다. 이를 신미양요라 한다(1871.6). 이 때 어재연이 이끈 조선군은 광성보에서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 한때 광성보를 점령하였던 미군은 조선 군민의 강력한 저항에 버티지 못하고 물러갔다.

이와 같이 두 차례에 걸친 서양의 침략을 물리친 조선 정부는 서양과의 통상 수교를 반대하는 정책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전국 각지에 척화비(斥和碑)를 세웠다.

㉠ 일본은 한반도 침략을 노리며 포함외교인 운요호 사건을 일으켰다(1875). 이를 계기로 조선은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어 나라의 문을 열었다(1876).

㉡ 이만손 등의 영남 유생들은 조선책략이 유포되어 미국과의 수교가 고려되자 위정척사를 내세우며 영남만인소(1881)를 올려 반대하였다.

34. 밑줄 그은 '거사'의 결과로 옳은 것은? [2점]



- ① 미국에 보병사가 파견되었다.
- ② 부산, 원산, 인천이 개항되었다.
- ③ 신식 군대인 별기군이 창설되었다.
- ④ 조선과 일본 사이에 한성 조약이 체결되었다.
- ⑤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통리기무아문이 설치되었다.

정답: ④

\* 갑신정변의 결과

임오군란(1882) 이후, 청나라는 조선 내정에 대한 간섭과 경제 침략을 강화하였다. 이에 반발한 김옥균, 박영효 등 급진적 개화 세력(개화당)은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모델로 하고, 일본의 군사적 지원을 받아 갑신정변을 일으켰다(1884).

김옥균 등의 급진 개화파 요인들은 1884년 12월 흥영식이 총판으로 있던 우정총국 건물 완공의 축하연회를 이용하여 정변을 일으켰다.

이들은 청과의 의례적 사대 관계를 폐지하고, 입헌 군주제(헌법에 의해 국왕의 권력을 제한)적 정치 구조를 지향하면서, 인민 평등권과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을 주장하였다. 또, 지조법을 실시하고, 호조로 재정을 일원화하였으며, 해상공국을 폐지하여 자유로운 상업의 발전을 꾀하였다.

하지만, 개화파 정권은 청군의 개입으로 3일 만에 무너지고 말았다. 이는 갑신정변 추진 세력의 정치·군사적 기반이 약했고, 민중의 지지 속에 정변을 성공시키기보다는 외세에 의존하는 방법을 택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갑신정변은 근대 국민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최초의 정치 개혁 운동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정변 직후 조선은 정변에 관여하여 주권을 침해한 일본에 엄중히 항의하였으나, 일본은 무력을 동원하여 정변 때 죽은 일본인에 대한 배상과 불에 탄 일본 공사관의 신축비 보상을 요구하였다. 조선은 한성 조약(1885)을 체결하여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①, ②, ③, ⑤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1876.1)이 체결됨에 따라 부산(1876), 원산(1880), 인천(1883)이 차례로 개항하게 되었고, 개화 정책 추진기구로 통리기무아문(1880)을 설치하였다. 또한 신식 군대인 별기군(1881)을 창설하였으며, 일본에는 수신사(1차-1876, 2차-1880)와 조사시찰단(1881)을 청에는 영선사(1881)를, 미국에는 보병사(1883, 서양에 파견된 최초의 사절단)를 보내어 신신문물을 견학시키고 개화정책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35. (가)~(다)를 체결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2점]

(가)   
 • 대한 정부는 대일본 정부가 추천한 외국인 1명을 외교 고문으로 삼아 외부(外部)에 용병하여 외교에 관한 주요 사무는 일제 그의 의견을 물어서 시행해야 한다.   
 • 대한 정부는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중요한 외교 안전 즉 외국인에 대한 특권 양여와 계약 등의 문제 처리에 관해서는 미리 대일본 정부의 상의해야 한다.

(나)   
 제2조 러시아 제국 정부는 일본국이 한국에서 정치상, 군사상 및 경제상의 타절(奪絶)한 이익을 갖는다는 것을 승인 하고, 일본 제국 정부가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보호 및 감리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 이를 방해 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

(다)   
 제4조 제3국의 침략나 혹은 내란으로 인하여 대한 제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 보전에 위협이 있을 경우에 대일본 제국 정부는 ……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정황에 따라 차지하여 이용할 수 있다.

- ① (가) - (나) - (다)                      ② (가) - (다) - (나)
- ③ (나) - (가) - (다)                      ④ (나) - (다) - (가)
- ⑤ (다) - (가) - (나)

정답: ⑤

\* 국권의 침탈 과정

- (가) 1차 한일 협약(1904.8)
- (나) 포츠머스 조약(1905.9)
- (다) 한일 의정서(1904.2)

삼국간섭 이후 러시아의 세력이 커지면서 일본과의 대립이 격화되었고, 일제는 이 때 세계 곳곳에서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던 영국과 제1차 영·일 동맹(1902)을 체결하여 국제적 입지를 강화한 후, 한반도 지배권을 둘러싸고 러시아를 선제공격하여 전쟁을 일으켰다(러·일 전쟁, 1904.2~190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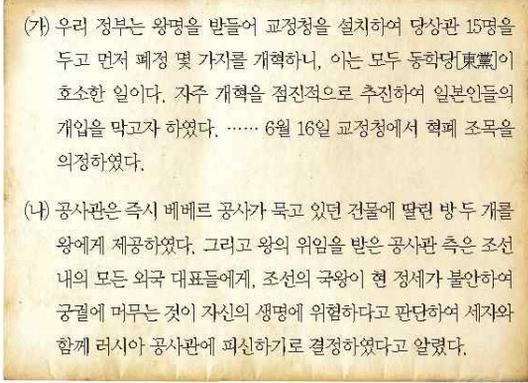
이에 대한제국은 국외 중립을 선언하였으나, 일제는 이를 무시하고 한·일 의정서(1904.2)를 강제적으로 체결하여 정치적 간섭과 군사적 점령을 꾀하였다. 그리고 이에 의거하여

제1차 한·일 협약(1904.8)을 체결하여 외교(스티븐슨), 재정(메가타: 화폐정리사업 추진) 등 각 분야에 일본이 추천하는 고문을 두어 한국 내정을 간섭하였다. 일제는 미국과는 가쓰라·태프트 밀약(1905.7), 영국과는 제2차 영·일 동맹(1905.8)을 맺은 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자 러시아와 포츠머스 조약(1905.9)을 체결하여 국제 사회로부터 한반도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승인받았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을사조약을 발표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설치하여 보호국으로 하였다(1905.11).

그러나 고종은 을사조약 체결이 무효임을 선언했으며, 국제 사회에 독립 국가로서의 정당성을 호소하였다. 특히, 미국에는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의 상호협력 조항을 근거로 헐버트를 특사로 파견하여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제2차 만국 평화 회의가 열리고 있던 네덜란드 헤이그에 이상설, 이준, 이위종을 특사로 파견하여 을사조약이 무효임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자 하였다(1907). 그러나 이러한 고종의 외교적 노력은 열강이 일본의 한국 지배를 인정하고 있던 세계정세 아래에서 성공을 허두지 못하였다.

일제는 헤이그에 특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켰다(1907.7). 이어 한·일 신협약(정미 7조약)을 체결하여 한국 정부의 각 부에 일본인 차관을 두어 내정을 장악하였으며, 군대마저 해산하고 실질적으로 한국을 지배하였다. 그리고 전국적인 의병의 저항을 무력으로 진압하고(남한대토벌작전: 1909.9~10) 사법권(기유각서: 1909.7) 과 경찰권(1910.6)을 빼앗은 다음, 친일 단체인 일진회를 앞세워 대한제국을 일본에 합치자는 각종 청원서나 성명서를 발표하게 하였고, 결국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들었다(한일병합: 1910.8).

36.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 ① 조·미 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 ② 명성황후가 일본에 의해 시해되었다.
- ③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였다.
- ④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 작전을 전개하였다.
- ⑤ 고종이 환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였다.

정답: ②

\* 교정청 설치(1894.6-음)와 아관파천(1896.2) 사이 시기의 역사적 사실

(가) 동학농민운동(1894)은 그 동안 쌓인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기 위한 개혁의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조선 정부는 교정청을 설치하여 (6.6) 농민들이 제기한 문제를 중심으로 정치 개혁을 실시하려 하였다. 일본은 경복궁을 점령(6.21)한 후 민씨 정권을 무너뜨리고 청·일 전쟁(6.23)을 일으킨 후, 흥선대원군을 섭정으로 하여 김홍집 내각을 통해 교정청을 폐지하고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6.25) 국정 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진하였다.

(나) 을미사변(1895.10,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에 의해 시해당함) 이후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은 러시아 공사 웨베르와 수병의 지원에 힘입어 러시아 공사관으로 1년여 기간 피신하였다(아관 파천, 1896.2~1897.2).

① 조선책략이 지식인층에 유포되어 미국과의 수교를 고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영남만민소(1881)와 같은 위정척사 유생들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의 알선으로 조미수호통상조약이 맺어지게 되었다(1882.5).

③ 갑신정변(1884.12) 이후 청·일본·러시아·영국 등이 조선을 둘러싸고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조·러 밀약설에 긴장한 영국은 1885년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다는 구실로 거문도를 3년간 불법 점령하였다(~1887).

④ 정미의병(1907~1908) 때에 유생 의병장들이 중심(신돌석, 홍범도 등의 평민 출신 의병장 배제)으로 13도 창의군이 결성되어 서울진공작전을 추진하였으나 지도부(총대장: 이인영, 군사장:허위)의 조직력 약화(이인영의 부친상 낙향)로 결국 실패로 끝났다(1908)

⑤ 아관 파천(1896.2) 이후 열강의 침탈이 더욱 심해지는 가운데 고종의 환궁을 요구하며, 고종을 황제로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이에 고종은 1년 만에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돌아왔다(1897.2).

환궁 후 고종은 연호를 광무라 고친 후 환구단을 쌓아 황제 즉위식을 하고 국호를 대한제국이라 선포하였다(1897.10).

37.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인물

- 1871 평양출생
- 1898 만민 공동회 간부로 활약
- 1907 국채 보상 운동 주도  
신민회 조직
- 1924 정의부 조직
- 1934 대한민국 임시 정부 국무위원으로 선임
- 1938 중국 장쑤 성에서 서거
- 1962 건국 훈장 대통령장 추서



- ①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 ②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을 조직하였다.
- ③ 베델과 제휴하여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였다.
- ④ 고종의 밀지를 받아 독립 의군부를 조직하였다.
- ⑤ 의열단의 활동 지침인 조선 혁명 선언을 집필하였다.

정답: ③

\* 양기탁에 대하여

독립운동가 양기탁(1871~1938)은 크게 두 가지의 큰 족적을 남겼다.

1. 그는 1904년 2월 영국인 베델과 함께 민족진영 인사들의 도움을 받아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였다. 이 신문은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하였으며, 항일의병 보도를 가장 많이 한 대표적인 항일언론이었다.

2. 국채보상운동에서는 국채보상 기성회에서 간사로 활동하였는데, 일제는 송병준 등 친일파가 지휘하던 매국단체 일진회를 이용하여 방해하고, 양기탁을 보상금횡령이라는 누명을 씌워 구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탄압했다. 결국 양기탁은 무죄로 석방되었지만 국채보상운동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좌절되고 말았다.

① 일제는 말기에 한글 연구단체인 조선어 학회를 독립운동 단체로 간주하여 최현배, 이희승 등 33명을 구속하여 취조하던 중, 이운재, 한징 등이 옥사하고, 학회를 강제로 해산시켰다(1942).

② 신민회(1907~1911)를 이끌던 안창호(1878~1938) 선생은 국권 피탈 후 1913년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을 조직하여, 무실역행(務實力行)의 기치 아래 항일 무장 투쟁보다는 실력양성 운동에 힘썼다.

④ 최익현의 제자 임병찬(1851~1916)은 고종의 밀지에 따라 의병을 모아 1912년 조직한 독립 의군부는 복벽주의(대한제국 재건)를 추구하였다.

⑤ 김원봉(1898~1958)이 이끄는 의열단은 신채호(1880~1936)가 작성한 '조선혁명선언(1923)'을 지침으로 삼아 일제와 친일 요인을 처단하고, 주요 기관을 파괴하였다.

38. 밑줄 그은 '이 조약의 체결에 대한 저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우리 대항제 폐하께서 강경하신 성의(聖意)로 자절하기를 그치지 않으셨으니, 이 조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하건대 이토 후작 스스로도 알고 간파하였을 것이다. 아, 저 개돼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은 자기 일신의 영달과 이득이나 바라고 거짓 위협에 겁먹어 머뭇대거나 벌벌 떨며 나라를 팔아먹는 역적이 되는 것을 달갑게 여겨서 사천 년의 강토와 오백 년의 종묘사직을 남에게 들어 바치고, 이천만 백성을 남의 노예가 되도록 하였도다.

- ① 민영환, 조병세 등이 자결로써 항거하였다.
- ② 이상설이 매국노 처단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렸다.
- ③ 고종이 헤이그 만국 평화 회의에 특사를 파견하였다.
- ④ 유생 출신 유인석이 이끄는 의병이 충주성을 점령하였다.
- ⑤ 나철, 오기호 등이 5적 처단을 위해 자신회를 조직하였다.

정답: ④

\* 을사조약(1905.11) 체결에 대한 저항

일제는 러·일 전쟁(1904~1905)에서 승리한 후 가쓰라-태프트 밀약(일-미), 영일동맹, 프츠머스 조약(일-러) 등을 통해 한국의 독점적 지배에 대해 열강의 승인을 얻어낸 후 이토 히로부미를 앞세워 고종과 대신들을 위협하여 제 2차 한·일 협약(을사조약)을 강요하였다(1905.11).

이에 따라 일제는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를 설치하였다. 통감은 외교에 관한 사무뿐만 아니라 대한 제국의 중요 법안과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내정을 전반적으로 지배하였다.

고종은 대한매일신보에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조약의 무효를 세계열강에 통고하였다. 장지연은 황성신문에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제목으로 논설을 실어 일본의 침략을 비난하였으며, 조약 체결에 앞장선 친일 대신들을 격렬하게 비판하였고, 민영환과 조병세는 자결로써 항의하고, 전국 각지에서 의병 항쟁이 일어났다. 양반 출신 민중식(홍성), 최익현(태인), 평민 출신 신돌석(평해) 등이 활약하였고, 조약에 서명한 친일파 대신들을 처단하기 위한 나철, 오기호의 5적 암살단이 조직되기도 하였다.

나아가 고종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 회의가 열리자 특사를 파견하여 조약의 무효를 전 세계에 알리도록 하였다(1907). 그러나 특사는 대한 제국에게 외교권이 없다는 이유로 회의 참석조차 거부되었으며 열강의 외면을 받았다.

④ 을미사변과 단발령 실시에 항거하여 유인석(제천 거병, 충주성 점령), 이소응(춘천) 등이 의병(을미의병, 1895~1896)을 일으켰다.

39.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한국사 강의 과제 안내문**

■ 개항 이후 설립된 아래의 학교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시오.

- 육영공원 ..... (가)
- 원산 학사 ..... (나)
- 배재 학당 ..... (다)
- 대성 학교 ..... (라)
- 한성 사범 학교 ..... (마)

■ 조사 방법: 문헌 조사, 인터넷 검색 등

■ 제출 기간: 2017년 00월 00일 ~ 00월 00일

■ 분량: A4 용지 3장 이상

- ① (가) - 헬버트, 길모어 등 외국인 교사로 초빙되었다.
- ② (나) - 교육 입국 조서 반포를 계기로 설립되었다.
- ③ (다) - 간도에 만들어진 민족 교육 기관이다.
- ④ (라) - 덕원 지방의 관민들이 합심하여 설립하였다.
- ⑤ (마) - 개신교 선교사가 선교 목적으로 세웠다.

정답: ①

**\* 개항 이후 설립된 근대 학교**

근대 학교는 새로운 학문을 가르치면서 민족 정신을 키워, 외세의 침략에 대항하는 민족 운동의 바탕이 되었다. 개화 운동이 진행되면서 정부에서 영어 강습 기관(동문학, 1883)을 세우고, 함경도 덕원에서는 관민이 합동하여 원산학사(1883)를 세우고 신지식과 외국어를 가르쳤는데, 이는 우리 나라 근대 교육의 출발점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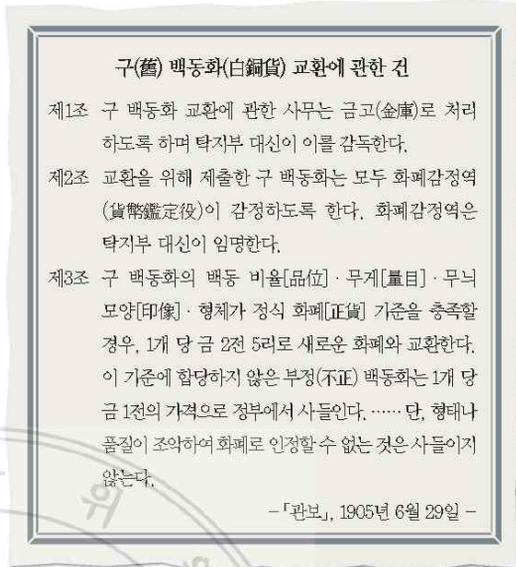
그 후, 정부에서는 육영공원(1886)을 세우고 미국인 교사 세 사람(헬버트, 길모어, 번커)을 초빙하여 주로 양반 자제들에게 신지식과 외국어를 가르쳤다. 한편, 외국의 개신교 선교사들도 정부의 협조를 얻어 배재학당(1885, 아펜젤러), 이화학당(1886, 스크랜튼), 정신여학교, 경신학교(1885, 언더우드), 배화학당 등을 세워 신학문과 서양 문화 및 영어 등을 가르쳤다.

또한 1895년 2월 고종은 국민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한 교육입국조서를 반포하여 학교를 세워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국가 중흥과 국가 보존에 직결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 조칙의 정신에 따라 동년, 교사 양성을 위한 4월의 '한성 사범학교 관제', 5월의 '외국어 학교 관제', 7월의 초등 교육을 위한 '소학교령', 등 근대적인 학교 설립을 뒷받침해 줄 각종 관제와 규칙이 제정되고 유학생을 선발하여 일본에 파견하였다.

을사조약 이후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신민회 회원인 이승훈은 평북 정주에서 오산학교(1907)를 안창호는 평양에서 대성학교(1908)를 설립하였다.

간도지역에서도 서간도에 이회영 등 신민회 회원들이 신흥 강습소(후일 신흥 무관 학교, 1911), 북간도에 서전서숙(1906, 이상설, 용정), 명동 학교(1908, 김약연, 화룡) 등 민족 학교를 세워 철저한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다

40.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화폐 발행을 위해 전환국이 설치되었다.
- ② 재정 고문 메가타의 주도로 시행되었다.
- ③ 은본위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배경이 되었다.
- ④ 황국 중앙 총상회가 중심이 되어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⑤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방곡령을 선포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답: ②

\* 화폐정리 사업(1905~1909)

러·일 전쟁(1904~1905) 중 일제는 한국의 내정을 간섭하기 위해 제1차 한·일 협약(1904.8)을 체결하고 스티븐스를 외교 고문, 메가타를 재정 고문으로 앉혔다. 메가타는 재정 정리 사업과 화폐 정리 사업(1905~1909)을 추진하여 황실 재정을 해체하고 한국의 금융을 장악하였다.

화폐 정리 사업은 은화·적동화·백동화·엽전 등 모든 화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역시 중점이 두어졌던 것은 백동화였다. 백동화는 주조량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 화폐가치가 불안정하여 경제에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백동화의 교환은 제일은행

에서 담당하고 백동화를 갑·을·병종으로 구분하여 갑종은 법정 교환율인 2전 5리로 교환해 주며, 을종은 1전으로 교환해 주거나 교환을 원치 않을 경우 화폐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절단하여 돌려주고, 병종은 아예 교환해 주지 않기로 하였다.

그 결과 유통 화폐의 부족 현상으로 국내 상공업자들과 민간 은행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 반면, 일본 상인들은 사전에 정보를 미리 알고 이에 대비하여 많은 이익을 챙겼다. 또한 화폐 정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일본 차관으로 조달하여 대한 제국은 거액의 국채를 떠안게 되어 재정 예측화가 심화되었다.

① 개항 이후 민씨 정권은 개화 정책 추진 등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상시적인 주전을 위해 전환국(錢圖局)을 설치하였다(1883).

③ 1894년 갑오개혁 당시 조세금납화의 조치로 신식화폐발행장정에 따라 은본위제가 채택되었다.

④ 개항 이후에는 청·일 등 외국 상인들이 침투해 오자 서울 도성의 시전상인들은 황국 중앙 총상회(1898.9)을 조직하여 상권 수호 운동을 전개하였다.

⑤ 개항 이후 일본 상인들이 곡물을 대량으로 사들여 일본으로 가져가면서 곡물 값이 크게 올랐고, 흉년으로 곡물이 크게 부족해 지자, 1889년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은 곡물 유출을 막기 위해 개정된 조·일 통상 장정(1883)에 따라 1개월 전에 외교 담당 관청에 통고하고 방곡령을 실시하였으나, 일본은 1개월 전에 자신들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히려 손해배상을 받았다.

41. 다음 회의가 개최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2점]

**역사신문**

제△△호 ○○○○년 ○○월 ○○일

**독립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 개최**

임시 정부의 활동 노선에 대한 비판이 안팎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대통령 이승만이 한국에 대한 국제 연맹의 위임 통치를 청원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에 반대하여 신채호, 박용만 등이 임시 정부와 의정원의 해산을 요구하는 등 갈등이 깊어졌다. 이에 상하이에서는 지역 대표 또는 단체 대표로 인정된 130여 명의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기존의 독립운동을 평가하고 반성하면서 임시 정부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하였다.

1910	1919	1931	1937	1941	1945
(가)	(나)	(다)	(라)	(마)	
국권 피탈	3·1 운동	만주 사변	중·일 전쟁	태평양 전쟁	8·15 광복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②

\* 국민대표회의(1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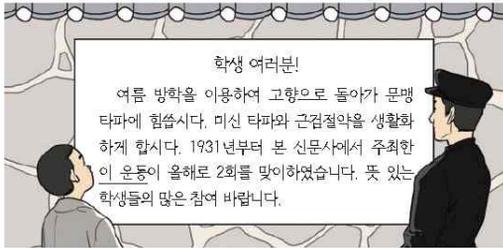
임시정부의 초기 주요 노선인 외교 활동이 번번히 좌절되는 가운데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구미위원부를 중심으로 외교활동)의 국제 연맹 위임통치 요청 문제가 계기가 되어 임시 정부는 내분에 빠져들었다.

임시정부의 외교 활동에 비판적인 신숙과 신채호 등은 군사통일 준비회를 열고, 이승만을 불신임하면서 독립운동 전체의 방향 전환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대표 회의의 개최를 주장하였다. 이에 만주와 연해주의 독립운동가들이 동조하였다.

국내외 여러 독립운동 단체 대표 140여 명이 참가한 국민대표 회의가 상하이에서 1923년 1월에 열렸다(안창호 제기, 임시의장). 회의에서는 독립운동 과정을 평가·반성하는 한편, 임시정부의 존폐를 둘러싸고 토론하였다. 토론에서 임시정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창조파(신채호, 신숙, 문창범)와 임시정부의 개조를 주장하는 개조파(안창호, 여운형, 김동삼)가 대립하였다. 두 입장의 차이를 좁히지 못해 회의는 결렬되었다.

이후 창조파는 연해주에 독자적인 정부를 수립하였으나 소련 정부의 퇴거 요구로 새 정부는 해체되었다. 한편 임시정부는 1925년에 이승만을 탄핵하고 박은식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이후 헌법 개정을 통해 집단 지도 체제를 채택하는 등 체제 정비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떠난 가운데 내각조차 구성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으며 침체에 빠졌다.

42. 밑줄 그은 '이 운동'의 표어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 ② 잘살려면 어린이를 위하라
- ③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1원씩
- ④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브나로드
- ⑤ 천차만별의 천시(賤視)를 철폐하자

정답: ④

\* 브나로드 운동(농촌계몽운동)

1920년대 후반부터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궁핍한 농촌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문제들을 우선 해결하자는 취지 아래 학생들을 중심으로 농촌 계몽 운동을 전개하였다.

여기에 앞장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문맹 퇴치, 생활 개선 등 농촌의 당면 문제들을 일제가 허용하는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해결하려 하였다.

조선일보는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는 구호와 함께 한글 교재를 보급하고, 전국 순회강연을 개최하면서 문자 보급 운동을 전개하였다(1929).

동아일보도 1931년부터 '브나로드 운동'이란 이름을 내세워 농촌 계몽 운동을 전개했는데, 여름 방학을 맞이한 학생들을 모아 행사를 기획하고 교재를 공급하였다.

4년 동안 5,700여 명이 참여한 브나로드 운동에서 학생들은 숙식을 비롯한 거의 모든 비용을 스스로 해결하면서 헌신적으로 활동하였다. 특히, 일제에 의해 전면 금지당한 1935년 이후에도 학생들은 비밀 결사를 만들어 농촌 계몽 운동을 계속 이어가려고 노력하였다

①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는 1920년대 물산장려운동의 표어이다.

② '잘살려면 어린이를 위하라'는 1920년대 소년 운동의 표어이다.

③ '한민족 1천만이 한사람이 1원씩'은 1920년대 민립대학설립운동의 표어이다.

⑤ '천차만별의 천시(賤視)를 철폐하자'는 1920년대 형평 운동의 표어이다.

43. 다음 방침이 결정된 이후 시행된 일제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2점]

- 조선인 지원병 제도를 채용하고 내선일체의 국방에 기여하게 한다. 단, 이것 때문에 조선인이 참정권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갖지 않게 한다.
- 신사숭경(神社崇敬)의 염(念)을 함양하여 일본의 국제 관념을 명징(明徵)하고 …… 사상 선도를 도모하는 등 황국 신민이라는 의식을 배양한다.

- 조선 통치에 관한 방침 -

- ① 조선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선 태형령을 시행하였다.
- ② 강압적 통치를 목적으로 헌병 경찰 제도를 실시하였다.
- ③ 회사 설립 시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회사령을 공포하였다.
- ④ 독립운동 탄압을 위해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을 제정하였다.
- ⑤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을 명분으로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다.

정답: ④

\* 지원병 제도(1938)가 실시 이후의 일제의 정책

일제는 만주사변(1931) 이후 중일전쟁(1937)의 배경 속에서 1938년 국가 총동원령을 선포하고 1940년대에는 태평양 전쟁(1941)을 도발하면서 인적·물적 자원의 수탈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 시기 일제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 하려는 황국 신민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일제는 내선 일체의 구호를 내세워 우리 말과 글을 쓰지 못하게 하였다. 또, 성과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고쳐 쓰도록 하고(창씨개명, 1939), 황국 신민 서사 암송(1937), 궁성 요배, 신사 참배 등을 강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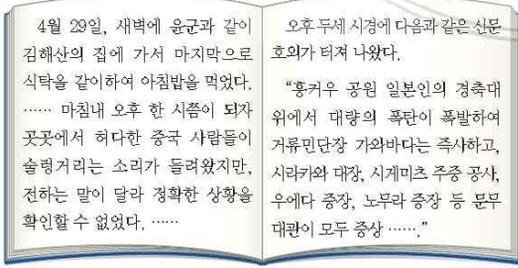
기존의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1936)에 이어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1941)를 공포하여 한국인 사상범을 사전에 탄압하였다

인적수탈로는 강제 징용(1944)으로 한국인 노동력을 착취하였고, (육군 특별) 지원병(1938), 학도 지원병 제도(1943), 징병 제도(1944) 등을 실시하여 수많은 우리 젊은이를 전쟁에 동원하였다. 또, 여성도 강제 노역조직인 근로보국대(1941)와 여자 정신대 근무령(1944)을 통해서 젊은 여성을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강제 동원하여 군수 공장 등에서 혹사시켰으며, 그 중 일부는 전선으로 끌고가 일본군 위안부로 삼는 만행을 저질렀다.

물적 수탈로는 양곡 배급제와 함께 미곡공출을 실시하였으며(1940), 물자 부족이 심화되자 일제는 군수 산업 이외의 기업 활동을 통제하기도 하였으며, 광물 자원의 약탈은 물론 학교의 철문이나 집안의 손가락까지 강제로 빼앗아 갔다(금속 공출, 1942).

①, ②, ③, ⑤ 1910년대 일제의 통치는 헌병경찰을 통한 무단 통치였고, 이들은 법원을 거치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즉결처분권을 지니고 조선인에게만 적용되는 야만적인 조선 태형령(1912)에 따라 매질을 가할 수 있었다. 경제적으로는 근대적 토지소유권 확립을 빌미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안정된 지세를 확보하고, 자유스러운 조선인 기업 설립을 방해하기 위하여 기업 설립을 허가제로 한 회사령(1910)을 제정하였다.

44. 다음 사건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자유시 참변이 일어난 원인을 조사한다.
- ② 신흥 무관 학교의 설립 배경을 파악한다.
- ③ 북벽주의를 내세운 단체의 활동을 정리한다.
- ④ 김구가 조직한 한인 애국단의 활동을 살펴본다.
- ⑤ 중광단을 중심으로 북로 군정서가 조직된 과정을 알아본다.

정답: ④

\* 윤봉길의 상해 홍커우 공원 의거(1932.4)

1920년대 후반 이후 침체기에 빠진 임시 정부에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 김구는 1931년 한인 애국단을 결성하여 적극적인 의열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이봉창이 도쿄에서 일본 국왕에게 폭탄을 투척한 사건(1932.1)과 홍커우 공원에서 있었던 윤봉길의 폭탄 투척이었다(1932.4).

특히 상해 점령군 사령관이던 시라카와 대장 등 많은 고관을 살상한 윤봉길 의거는 중국인들에게 큰 감명을 주어 중국 국민당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차후 한국광복군 탄생의 바탕이 되었다.

① 1920년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에서 활약하던 북간도 지역의 북로군정서, 대한독립군 등의 제 독립군들은 그해 말의 간도참변으로 인하여 소련의 지원을 믿고 만.소 접경 지역인 밀산부에서 모여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하였고(1920.12, 총재 서일), 이듬해 연해주 자유시로 근거지를 옮겨갔으나 독립군의 지휘권을 놓고 이르쿠츠포와 상해파 공산당간의 갈등 속에 자유시 참변(1921년 6월, 소련군에 의해 무장해제되는 과정에 다수가 참살됨)을 겪었다.

② 이회영 등 신민회 회원들은 남만주(서간도) 삼원보에 독립기지를 개척하고, 1911년 자치기관으로는 경학사를, 학교로는 신흥강습소(후일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여 항일무장투쟁의 주역들을 길러냈다.

③ 최익현의 제자 임병찬(1851~1916)은 고종의 밀지에 따라 의병을 모아 1912년 조직한 독립 의군부는 북벽주의(대한제국 재건)를 추구하였다.

⑤ 단군 신앙을 받드는 대중교는 국권 피탈 후 교단을 북간도로 옮기고 많은 민족 학교를 설립하고 중광단(1911) 등 항일 무장 단체를 결성하였다. 중광단은 3·1 운동 이후 북로 군정서로 개편되어 적극적인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45. (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이탈의 독립운동가**

**준엄 박인호**

선생은 1908년 천도교 제4세 대도주가 된 후 동덕 여학교와 보성 학교 등을 운영하여 민족의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였다. 사회주의자들이 순종의 인산일을 기회로 (가) 을/를 준비할 때, 선생은 이들과 연계하여 '대한 독립 만세', '조선인 교육은 조선인 본위로' 등의 전단 수만 장을 인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적극 참여하였다. 정부는 선생의 공적을 기려 1990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 ① 조선 노동 총동맹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 ② 일제가 조작한 105인 사건으로 타격을 입었다.
- ③ 신간회 중앙 본부가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였다.
- ④ 일제가 이른바 문화 통치를 실시하는 배경이 되었다.
- ⑤ 국내에서 민족 유일당 운동이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다.

정답: ⑤

\* 6.10 만세운동(1926)

사회주의자와 조선학생과학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학생들은 순종의 인산일을 기회로 만세 운동을 계획하였다(1926).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이 추진한 계획은 사전에 발각되었다.

그러나 학생 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시위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되어 순종의 국장일인 6월 10일, 학생들은 일제 경찰의 삼엄한 경비를 뚫고 장례 행렬을 따라가며 서울 시내 곳곳에서 만세 시위를 벌였고, 많은 시민들이 합세하였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전국 곳곳의 학생들도 동맹 휴학 투쟁을 벌여 호응하였다.

6·10 만세 운동은 전국적인 시위로 확대되지는 못했지만, 일제 타도를 위한 구체적 실천 노선을 제시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당시 격문에는 '조선인 교육은 조선인 본위로', '일제의 압세를 거부하라!', '일본인 공장의 직공은 총파업하라!', '일본인 지주에게 소작료를 바치지 마라!' 등 교육과 사회·경제적인 투쟁의 지침이 제시되어 있었다.

또한, 운동의 준비 과정에서 조선 공산당 등 사회주의 세력과 천도교(박인호 기여) 등 민족주의 세력이 연대함으로써 민족 유일당을 결성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① 노동자 농민의 공동 조직인 조선 노동 총동맹(1924)은 1927년 조선 노동 총동맹과 조선 농민 총동맹으로 분리되며, 노동쟁의와 소작쟁의 모두 전국적 조직으로 커지며 쟁의는 더욱 확산되었다.

② 비밀결사 애국계몽운동단체 신민회(1907~1911) 일제가 조작한 105인 사건으로 타격을 받아 해산되었다(1911).

③ 1929년 11월, 전남 나주역에서 한·일 학생 간의 충돌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신간회(1927~1931)를 통한 진상 조사 후원에 힘입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④ 3.1 운동은 우리민족의 독립운동에 자신감을 불어넣어 임시정부 수립의 배경이 되었고, 일제의 통치를 유화적인 문화통치로 바뀌게 하였다.

46. (가)~(다) 학생이 발표한 법령을 공포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2점]



- ① (가) - (나) - (다)      ② (가) - (다) - (나)  
 ③ (나) - (가) - (다)      ④ (나) - (다) - (가)  
 ⑤ (다) - (가) - (나)

정답: ①

\* 일제의 조선 교육령

(가) 1차 조선 교육령(1911): 우민화 교육(실업 교육 위주로 한 단순 기능인력 양성), 보통·실업·전문학교 구분, 보통학교 4년(일본 6년과 차별화 된 교육).

\* 사립학교 규칙(1911) -> 사립교육 탄압

(나) 2차 조선 교육령(1922): 유화 정책, 보통교육 4년->6년, 조선어를 필수과목, 형식상 고등교육기관(대학) 설립을 가능케 하여 민립대학설립운동이 진행되었으나 일제는 방해하고 대신 관립 경성제국대학 설립(1924),

(다) 3차 조선 교육령(1938): 보통학교 -> 심상소학교, 학교명과 교육과정을 일본 본국 학교와 통일, 조선어 선택, 조선사 대신 일본사 강화

\* 천황 칙령에 의한 개정(1941): 소학교 -> 국민학교

4차 조선 교육령(1943): 교과목을 국민과, 이수과, 체력과, 예능과, 직업과로 통합, 중등교육 수업 연한 단축, 조선어 과목 폐지, 전시교육체제 강화(학생들을 전쟁과 생산 현장에 동원).

47. 밑줄 그은 '개헌'의 결과로 옳은 것은? [3점]

지난 29일 자유당 및 행정부의 헌법 파괴 행위를 규탄하고  
..... 개헌 파동에 대한 우리의 견해와 결의를 재천명하고자  
한다. 민의원 재적의원 203명의 3분의 2가 136명이나 135명  
이나 하는 점에 관해서는 이와 같은 경우에 정확한 수학적 3분의  
2선인 135.33...을 넘는 최소 인수(人數)인 136명이 의안 통과에  
필요한 최저선이라는 데 세계 각국의 학설과 구미 선진 제국의  
실지(實地)가 일치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대한민국 헌법에  
개헌안의 의결에는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만큼 거기서 0.33은 고사하고 0.001만  
부족해도 이미 3분의 2에 미달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 ① 정부 형태가 내각 책임제로 바뀌게 되었다.
- ②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 ③ 5년 단임의 대통령이 직선제에 의해 선출되었다.
- ④ 국회에서 간접 선거 방식으로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 ⑤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이 철폐되었다.

정답: ⑤

\* 사사오입 개헌(1954)

1954년 5월, 제3대 국회의 민의원 선거에서  
는 관권의 개입으로 자유당이 압승하였다.  
본래 2차 개헌(발췌개헌)에 따라 양원(참의원.  
민의원) 선거가 있어야 하나 6·25 전쟁  
직후 국내 정세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참의원  
선거는 치르지 않았다.

이승만과 자유당은 권력을 계속 장악하기 위  
해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重任) 제한을  
철폐하자는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  
다. 국회는 야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서 이를  
부결시켰으나, 자유당은 부결 이틀 만에 사  
사오입의 논리를 내세워 가결을 선언하였다  
(2차 개헌: 1954.11).

① 4.19 시민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된  
후인 1960년 6월의 3차 개헌에서 내각책임  
제와 양원제가 채택되었다.

② 박정희 정권의 유신 헌법(1972.10, 7차  
개헌)은 통일주체국민회의(35조에 규정한 헌  
법 기구)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로 대통  
령을 선출(대통령 임기 6년, 연임 제한 없음)  
케 하였다(간선제).

③ 6월 민주화 운동(1987)의 결과물인 9차  
개헌을 통해 5년 단임의 대통령을 국민이 직  
접 뽑게 되었다(직선제).

④ 초대 제헌 헌법(1948.7)은 국회에서 대통  
령을 선출하는 간선제를 채택하였다(임기 4  
년)

48. 다음 정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1점]

(사진으로 보는 ○○○ 정부)



- ① 농지 개혁법 제정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농민
- ② 금융 실명제에 따라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은행원
- ③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해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하는 국민
- ④ 한·칠레 자유 무역 협정(FTA)의 비준을 보도하는 기자
- ⑤ 한·독 근로자 채용 협정에 의해 서독으로 파견되는 광부

정답: ⑤

\* 박정희 정부(1963~1979) 시기의 경제적 사실

박정희 정부는 조국 근대화 실현을 국정的主要 목표로 삼고,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을 추진하면서, 일본의 사과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시민, 학생들의 격렬한 반대를 억누르고(1964년 6.3 사태) 한·일 협정을 체결하여 국교를 정상화하였다(1965). 또, 공산주의 세력과 맞서 싸우기 위해 베트남전에 군대를 파병하였다(1965~1973).

한편 한·일 협정 체결의 대가로 들여온 외화와 베트남 파병에 따른 베트남 특수는 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외화 부족에 시달리던 한국 정부는 광부와 간호사를 서독에 파견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서독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의 수입은 1960~70년대 한국 경제 성장의 종자돈 역할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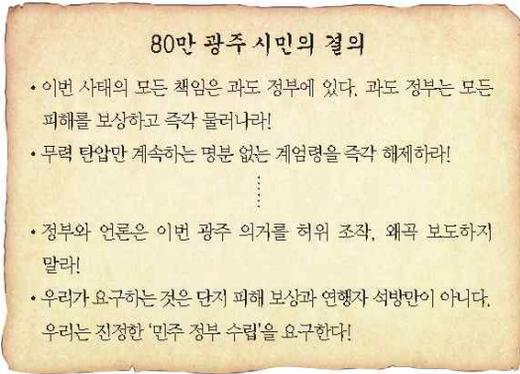
① 1950년대에 제헌국회와 이승만 정부(1948~1960) 개혁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농지개혁법을 제정(1949.6)하여 3정보 상한에 유상 매수, 유상 분배를 원칙으로 하는 농지개혁이 실시되었다(1950~1957).

② 1990년대에 들어서 김영삼 정부(1993.2~1998.2) 때에는 탈세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였다(1993),

③ IMF 경제 위기 속에서 출범한 김대중 정부(1998.2~2003.2)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 위원회를 만들고 기업구조조정, 외국자본 유치, 부실기업 정리를 하고 국민의 금모으기 운동 등에 힘입어 2001년에는 IMF 관리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④ 노무현 정부(2003.2~2008.2) 때에는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2004), 한미 자유무역협정(2007년 일부 분야 한정 체결, 재협상 후 2012년 이명박 정부 때에 발효) 등이 체결되어 세계무역 10대국 반열에 오르는 기반이 되었다.

49.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여 일어났다.
- ② 4·13 호헌 조치에 국민들이 저항하며 시작되었다.
- ③ 3·15 부정 선거에 항의하는 시위에서 비롯되었다.
- ④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 ⑤ 3·1 민주 구국 선언을 통해 긴급 조치 철폐 등을 요구하였다.

정답: ④

\* 5.18 광주 민주화 운동(1980)

1979년 10.26 사태(박정희 대통령 피살)로 유신 체제가 막을 내리면서 국민들은 민주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이 군대의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병력을 동원하여 군사권을 장악하였다.

1980년 5월 이른바 '서울의 봄'이라 불리는 대규모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자, 신군부 세력은 5월 17일 비상계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정치 활동을 모두 금지시켰다.

5월 18일 광주에서 비상계엄 해제와 신군부 세력 퇴진, 김대중 석방, 민주주의 실현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학생 시위가 발생하였다. 신군부는 공수 부대 등을 동원하여 무력으로 진압하였고, 이에 격분한 학생과 시민들이 시민군을 결성하여 시가전을 벌였으나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살상되며 5월 27일 진압되었다.

5·18 민주화 운동은 비록 좌절되었지만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밑거름이 되었다.

또한 2011년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5.18 광주민주화 운동 자료들이 등재되었다.

① 박정희 정부의 한일 국교 정상화 추진 과정 중 대일 청구권 문제, 어업 문제, 문화재 반환 문제 등에서 우리 측이 지나치게 양보한 굴욕적인 외교라며 회담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1964년 6·3 시위).

② 전두환 정부의 강압적인 통치하에서도 계속된 민주화 요구는, 1987년 박종철 고문 사망 사건과 4·13 호헌 조치를 계기로 대통령 직선제를 관철하려는 6월 민주 항쟁으로 발전하였다.

③ 1960년 이승만 정부의 3.15 정.부통령 대선 때의 부정선거는 4.19 시민혁명의 원인이 되었다.

⑤ 박정희 정부의 유신 체제에 반대하여 재야 정치인, 종교인, 대학 교수 등은 긴급조치 철폐 등을 요구하는 3.1 구국 선언(1976)을 발표하였다.

50. 밑줄 그은 '이 선언'이 발표된 결과로 옳은 것은? [2점]

**POST CARD**

보고 싶은 조카에게  
잘 보내나?  
남북 통일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들었어. 분단의 고통을 해소하고,  
민족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통일은 꼭 필요하거.  
이 사진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에 2000년에 평양에서  
만나는 역사적인 장면이란다.

두 정상은 회담 후에 이 선언을  
발표하였지.  
다음에 만나서 통일에 대해 더  
이야기해 보자.

삼촌이



- ①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 ② 남북 조절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 ③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 이루어졌다.
- ④ 남북한이 개정 공단 조정에 합의하였다.
- ⑤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이 처음으로 성사되었다.

정답: ④

\* 6.15 공동선언(2000)의 결과

**7·4 남북 공동 선언(1972):** 1970년대에 들어와 닉슨 독트린(1969, 미국의 불개입주의 천명) 발표 이후 냉전 체제의 완화, 남한의 경제 발전 등 국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박정희 정부는 남북 교류를 제의하고(1970년 8.15. 선언, 남북한 선의의 경쟁), 남북 간에 이산 가족 찾기 운동을 위한 적십자 대표의 예비 회담을 열었다(1971.9~1972.8). 또, 서울과 평양에서 7·4 남북 공동 성명이 동시에 발표되었다(1972).

이 성명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이후 통일 논의의 기본 원칙이 되었다.

이 발표로 남북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어 직통전화(핫라인) 가설과 남북 조절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선언 직후 박정희 정부는 10월 유신을 선포하여 장기 집권을 꾀하였고, 북한도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여 유일 지도 체제(주석 체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남북 기본합의서(1991):** 노태우 정권기인 1990년대에 들어와 급격한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남한의 적극적인 북방 외교 정책이 추진되었다. 남북한은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으며(1991.8),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문화, 체육의 교류도 이루어졌다.

곧이어 12월에는 7.4 남북 공동 선언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 간의 잠정적이고 특수한 관계를 인정한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 기본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1992.1)이 채택되기도 하였다.

**6.15 공동 선언(2000):** 1998년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금강산 관광 사업(1998) 등의 정부와 민간 차원의 교류가 크게 확대되었다. 마침내 평양에서 정상 회담(김대중-김정일)이 이루어져 6·15 남북 공동 선언이 발표되었다(2000).

이 선언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앞으로 이 방향에서 자주적으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 선언에 따른 후속조치로 경의선 복구 사업(2000~2002), 개성 공단 건설(2000년 합의, 2004년부터 입주), 이산가족 상봉 등이 실현되어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화해 협력이 진전되고 있다.

⑤ 전두환 정부 때에 남북한의 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이 각각 서울과 평양을 처음으로 방문하였다(1985. 9.).